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841-01

청소년 혐오차별 대응
워크숍 프로그램 교안

혐오차별 대응하기



국가인권위원회



워크숍 프로그램을 내면서

“혐오는 그냥 감정적으로 싫은 것을 넘어서 어떤 소수자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태도를 뜻한다. ...중략... 의도와 무관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무시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보고 차별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런 말들이 자꾸 발화될수록 그런 이미지가 더욱 강화되어 사실로 둔갑하고, 이것이 다시 차별을 낳게 되는 것이다.”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어크로스, 24~25쪽>

누군가 여러분의 존재를 싫어하거나 부정한다면, 그런 말이 곳곳에서 들린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또 혐오와 차별의 말이 사회 속에 범람할 때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혐오와 차별의 말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혐오와 차별은 사회적 약자로서의 소수자에 대한 무지나 왜곡된 정보, 사회적 편견 등으로부터 형성됩니다. 따라서 혐오와 차별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 제공과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5월 2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한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 실천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 후속사업으로 청소년 혐오차별 대응 워크숍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이 워크숍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관용과 연대의 정신을 실천하며 혐오와 차별이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워크숍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에 뿌리깊이 스며든 혐오와 차별을 인지하고 서로의 다양성에 기반한 상호존중의 인권 감수성 향상과 인권문화를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워크숍 프로그램은 청소년 시설, 시민단체, 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 등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참여와 연대의 순간을 기대합니다.



프로그램 구성 및 목차

1회기

일상 속 혐오와 차별 마주하기 (3시간 소요)



[개요]	6
[도입활동] 관계 형성 활동	9
- 참가자 간 관계를 형성하며 활동하기 - ‘꽃같은 사람’, ‘다름을 존중하는 약속문 만들기’	
[전개활동1] 놀이문화 돌아보기(놀이면서 생각하기)	12
- 익숙한 놀이를 통해 자신 안의 혐오와 차별적 인식 발견하기 - (선택활동) ‘짝짓기 게임’ 또는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시나요?’	
[전개활동2] 내 안의 혐오·차별 돌아보기(생각하며 놀기)	17
-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차별과 혐오 성찰하기 - (선택활동) ‘세 가지 상징’(부록 1) 또는 Who are you? (부록 2)	
[전개활동3] 일상 속 혐오·차별 돌아보기(한 번 더 생각하기)	26
인터넷 ‘밈(짤)’에 담긴 웃음과 혐오’ 활동하기	
[마무리활동] 마무리하기	28
- 그림책을 통해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려는 마음 가지기 - ‘입 없는 아이 이야기’	

2회기

혐오표현 알아보기 (3시간 소요)



[개요]	32
[도입활동] 수수께끼 상자	35
‘수수께끼 상자’ 활동을 통해 고정관념과 편견 알아보기	
[전개활동1] 혐오표현의 정의	38
‘감기걸린 물고기’ 활동을 통해 혐오표현 알아보기 - 색깔 물고기 액션카드(부록1), 감기걸린 물고기 그림책 일부(부록2) - 강의자료(부록3~4)	
[전개활동2] 혐오표현 살펴보기	44
- 혐오표현 스펙트럼 활동을 통해 혐오표현 살펴보기 - 혐오표현 스펙트럼 활동지(부록5), 색깔 스펙트럼지(부록6) - 혐오의 피라미드 강의(부록7)	
[전개활동3] 혐오표현 분석하기	53
‘혐오표현 나무’ 만들기를 통해 혐오표현 분석하기 - 혐오표현의 해악 강의(부록8~10)	
[마무리활동] 나의 언어로 정리하기	59



프로그램 구성 및 목차

3회기

함께 협오에 맞서기 (3시간 소요)



[개요]	62
[도입활동] 배운 내용 떠올리기	64
• ‘피라미드 대화 나누기’을 통해 배운 내용 떠올리기	
[전개활동1] 대항표현의 의미와 필요성 알기	65
- 몸으로 느끼는 대항표현	
- 대항표현에 대한 강의(부록1~2)	
- 대항표현 연습하기	
- 나만의 대항표현 해시태그 만들기	
[전개활동2] 대항표현 실천하기	71
- 대항표현 캠페인 사례 탐색하기(부록3)	
- 대항표현 이미지 퍼즐만들기	
- 실천활동 마무리하기(부록4)	
[마무리활동] 전체 마무리	78
- 마무리 성찰하기	
- 미니수료식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부락의 말씀

- 참여자의 나이 등과 상관없이 참여자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존칭을 사용해 주세요.
- 참여자가 모두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장소를 마련해주세요.
- 소집단(5~6명 내외) 활동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배치해주세요.
- 경쟁이 과열되어 활동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활동 후에는 느낌이나 소감 나누기를 통해 참여자의 감정을 살피고 활동에서 소외되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없었는지 확인해주세요. 만약 활동을 하다가 참여자의 불편함을 감지하였다면 활동을 수정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활동 중에 드러날 수 있는 혐오 표현에 특히 유의하며 예시 자료나 활동으로 인한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참여자 중에도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가 있을 수 있음을 늘 유념하여 프로그램을 이끌어주세요.

**1회기
일상 속
혐오와 차별
마주하기**

활동 안내



1회기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를 통해 참여자 내부의 혐오와 차별을 마주해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본 회기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와 진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유의해주세요. 특히 본 회기를 진행할 때, 놀이 활동이 단순히 재미로 그치지 않고, 몸 활동을 통해 참여자가 스스로 혐오와 차별을 돌아볼 수 있도록 진행해주세요.

활동 목표



- 진행자와 참여자가 만나 관계를 맺고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 배제와 차별의 문화, 개인의 내면에 자리한 혐오의 마음을 발견한다.

준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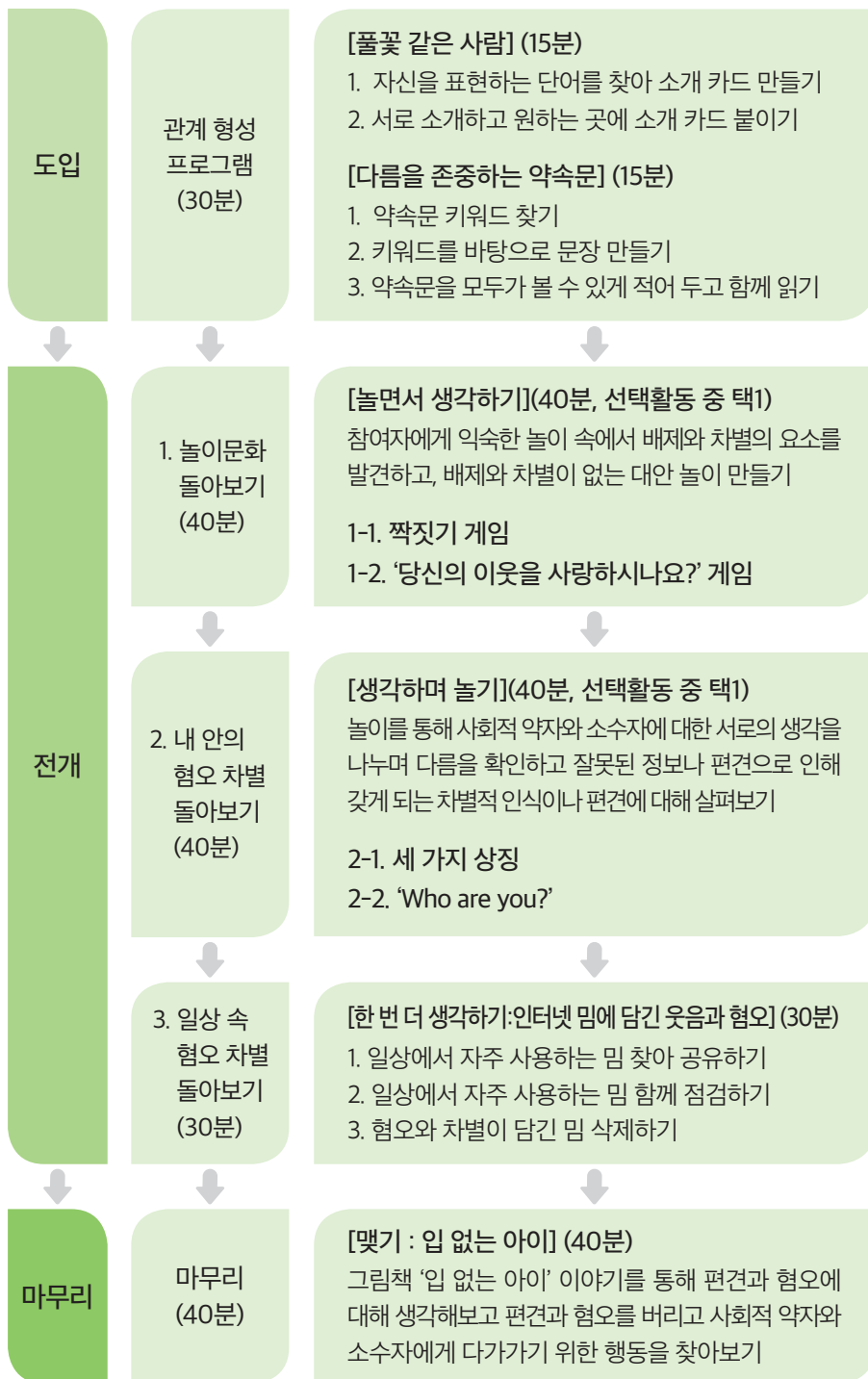


- 참여자 준비물: 간단한 필기 도구, 스마트폰
- 진행자 준비물

준비물	필요한 순간	대체 가능 준비물
노트북, 프로젝터 (큰화면), 동영상 자료 (인터넷 연결 또는 별도 파일)	<전개3>과 <마무리>에서 동영상 을 보는 활동을 할 때 필요합니다.	프로젝터나 큰 화면으로 함께볼 수 없다면 모뎀별로 스마트기기를 통해 시청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 니다.
도화지, A4 용지 (또는 포스트잇) 펜, 채색 도구	<도입>에서 '자기소개(꽃잎 같은 사람)' 활동 시 '소개 카드'를 만들고 공간에 전시할 때 필요합니다.	소개 카드를 작성할 수 있는 종이와 채색 도구와 벽에 붙일 수 있는 도구 어느 것 이든 상관없습니다.
화이트보드(칠판) 또는 보드마카(분필)	<도입>에서 '다름을 존중하는 약속문 만들기' 활동을 진행할 때 약속문을 크게 적어 놓는 기능을 합니다.	약속문을 쓸 수 있는 큰 종이와 두꺼운 펜을 준비 하여 게시합니다.

준비물	필요한 순간	대체 가능 준비물
단어 카드	<전개2>에서 <전개2-1> 활동을 선택할 경우, ‘세 가지 상징 단어 카드’를 각 두 세트씩, <전개2-2> 활동을 선택할 경우, ‘Who are you 단어 카드’를 참여자의 수를 고려하여 선택해서 준비합니다.	단어 카드 세트가 없는 경우 메모지에 보이지 않도록 적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북 보드판, 지우개 달린 얇은 마카펜, 종이와 펜	<전개2-2> 활동에서 그림을 그리고 정답을 쓸 수 있는 스케치북 보드판과 얇은 마카펜이 1인당 1개씩 필요합니다.	스케치북 형태의 보드판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10장 내외의 스프링 노트를 잘라 1인당 두 개씩 나누어 가집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참여자들을 위한 추가 스 마트 기기	<전개3>에서 인터넷 밈(짤)을 검색하고 공유할 때 사용합니다.	추가 기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자신이 보았던 밈을 그릴 수 있는 종이와 펜을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활동 과정



활동 세부 내용



도입활동

관계 형성 활동(30분)

활동 목표

- 진행자와 참여자가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눈 뒤, 서로를 소개하고 관계를 맺는다.
- 활동에 필요한 약속문을 만들며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풀꽃 같은 사람 (15분)

준비물:
강의 진행
자료, 소개
카드 용지
(도화지,
A4 용지,
포스트잇
등), 펜과
채색 도구

워크숍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여는 활동은 진행자-참여자간 서로의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활동입니다. 아직은 낯선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잇는 활동을 통해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 1) 참여자와 진행자가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 2) 진행자는 자신을 소개할 때, 짧은 글 또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이름)은/는 □□ 같은 사람입니다.'라는 문장으로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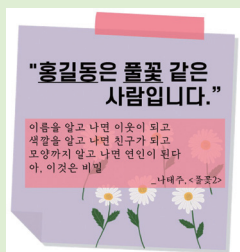
진행자 발언 예시

◆ '풀꽃 같은 사람' 소개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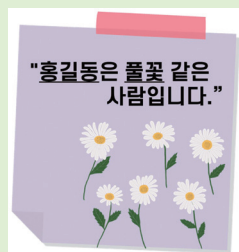
반갑습니다. 저는 ○○○(이름)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혹시 진행자가 포스트잇에 그린 꽃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이 꽃은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풀꽃의 한 종류인 데이지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러 온 저는 풀꽃 같은 사람입니다. 어제까지 여러분은 길가에 핀 풀꽃을 그냥 지나쳤겠지만, 오늘 우연히 수많은 풀꽃 중 데이지꽃을 만난다면 조금 더 반갑게 느껴질 거예요. 제가 풀꽃이라는 단어로 저를 소개한 이유는 바로 나태주 시인의 짧은 시와 우리의 만남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제가 준비한 시를 읽어주시겠어요?

(시를 읽은 뒤) 지금은 서로의 이름도 색깔도 모양도 낯설지만, 오늘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공간이 조금 더 익숙하고 편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여러분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찾아 포스트잇에 한 문장으로 소개해주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나눈 모든 말과 행동은 비밀이니 최대한 솔직하게 작성해주세요.

꽃
같은
사람
(15분)



진행자 소개 카드 예시
(이미지 혹은 글귀와 함께 소개)



참여자 소개
카드 활동 예시

- 진행자는 ‘꽃꽃’ 대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단어와 글귀, 이미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진행자의 소개를 들은 참여자는 자신을 소개하는 단어로 한 문장을 만들어 소개 카드에 적고, 문장과 관련된 간단한 그림을 그린다.

도움말

- 참여자 또한 ‘꽃꽃’ 대신 들어갈 수 있는 긍정적인 단어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사물, 동물, 식물), 오늘 내가 불리고 싶은 부캐(캐릭터, 사람, 닉네임 등)
- 소개하는 활동에서 문장을 만들기 어려워하는 참여자가 있다면, 충분히 기다려주세요.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한 참여자의 소개는 약속문 만들기 활동 이후 진행해도 좋습니다.
- 소개하는 활동에서 외모와 관련된 말은 지양합니다. 만남과 관계를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서로 다른 삶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 4) 소개 카드 작성이 끝나면 한 사람씩 돌아가며 자신을 표현한 문장을 소개한다.
- 5) 소개가 다 끝나면 자신의 소개 카드를 붙이고 싶은 공간에 자유롭게 붙인다.
- 6) 참여자는 공간 곳곳을 둘러보며 다른 사람의 소개 카드를 살펴보고, 진행자는 우리가 한 공간에 모여있지만,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가진 여러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다름을
존중하는
약속문
만들기
(15분)

준비물:
화이트보드
(칠판),
보드마카
(분필)

소개가 끝나면 낯선 공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안전하고 즐겁게 진행하기 위한 약속문을 만드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 1)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약속문을 함께 만들어볼 것임을 안내한다.
- 2) 키워드 찾기 : 약속문에 들어갈 키워드 단어를 먼저 찾아 발표한다. 진행자부터 시작해 모든 참여자가 약속문을 만들 때 필요한 단어들을 하나씩 돌아가며 이야기한다.

(예시) 존중, 배려, 차별, 권리, 목소리 등

도움말

- 약속문의 키워드를 정할 때, 새로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참여자에게는 순서를 넘어간 뒤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주세요.
- 순서가 한 바퀴 지나간 뒤에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앞에 나온 단어 중 공감하는 단어를 중복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 3) 문장 만들기 : 함께 나눈 키워드를 바탕으로 약속문 문장을 만든다. 진행자는 키워드를 적절히 묶어 4-5개 정도의 문장으로 추려낸다.

(예시) 우리는 작은 생각이라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예시) 당연한 정답은 없어. 정답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야!

(예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자.

- 4) 함께 만든 약속문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화이트보드(칠판)에 크게 적어 놓은 뒤 함께 소리 내어 읽는다.

도움말

- 워크숍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약속문을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프로그램 도중 약속문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함께 만든 내용을 상기해줍니다.
- 약속문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건의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 금지하는 약속보다는 참여를 독려하는 약속문을 만들어봅니다.

- 5) 참여자의 소개 카드와 다름을 존중하는 약속문으로 채워진 공간을 상기하며 참여자의 긴장을 완화한다. 프로그램 흐름을 안내하며 활동에 대한 흥미와 기대를 이끌어 마무리한다.

※ 전개활동1의 예상되는 소요시간은 총 40분으로, 진행자가 두 가지 활동(1-1, 1-2)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여 활동하거나 시간이 남는 경우 두 가지 활동 모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전개활동
1-1

놀면서 생각하기1-1: 짝짓기 게임(40분)

활동
목표

- 익숙한 놀이 활동 속에서 배제와 차별의 문화를 발견할 수 있다.
- 차별과 배제가 없는 놀이 활동을 창작할 수 있다.

‘짝짓기
게임’
활동하기

짝짓기 게임은 여러분이 어렸을 적부터 레크레이션 활동 등을 통해 한 번쯤 경험해봤을 단체 게임입니다. 참가자 여러분들이 직접 게임 활동에 즐겁게 참여해 보고 익숙한 놀이 활동 속에 숨은 차별의 요소는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 1) 참가자 모두가 손을 잡고 커다란 원을 만든 후 함께 노래(예: 동요 ‘둥글게 둥글게’)를 부르며 일정한 방향을 정해 천천히 걷는다.
- 2) 진행자의 신호에 따라 몇 명씩 그룹을 만든다. (예를 들어 20명의 참여자가 있을 때 모두 손을 잡고 돌다가 진행자가 “3명”이라고 외치면 3명씩 뭉쳐서 그룹을 만든다)
- 3) 진행자의 신호에 맞춰 그룹을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탈락자가 되어 게임이 끝날 때까지 원 바깥에서 게임 진행을 참관한다.

도움말

- 참가집단에 실제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소외의 문제를 겪는 참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참여를 원치 않는 사람은 제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외의 느낌을 강화하기 위해 탈락자에게 약간의 벌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벌칙은 게임 시작 전 참가자의 동의를 얻어 정하도록 합니다. (벌칙 예시: 노래부르기 등)

- 4) 4~5회 정도 게임을 진행한 후 진행자는 참가자들과 활동을 하며 들었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나누어 본다.



진행자 질문 예시

- ◆ 참가자들끼리 게임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느낌 나누기
 - 게임을 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즐거웠나요?
 - 게임을 하면서 불편하게 느끼거나 생각했던 점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떤 것인가요?
 - 게임 중 그룹에 속하지 못하고 탈락했을 때의 느낌은 어땠나요?
 - 게임 중 규칙에 따라 누군가를 그룹에서 내보낼 때의 느낌은 어땠나요?

5) 게임의 규칙을 바꾸어본다.



진행자 질문 예시

-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없도록 게임의 규칙을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도움말

- 모든 사람이 소그룹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진행자가 사람의 숫자를 조정하여 부릅니다. (20명일 경우 2, 4, 5, 10명 등으로 나머지가 없도록 조정)
- 그룹에서 제외된 참가자에게 다른 역할(전체 진행자)을 줍니다.
- 이전 게임에서 소그룹을 만들지 못해 탈락되더라도 게임에서 빠지거나 참관하지 않고 다음 게임에 바로 연속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 진행자도 게임에 포함되어 소그룹에 들어가지 못한 탈락자가 생기면 다음 진행자의 역할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6) 바꾼 규칙으로 게임을 진행한다.

도움말

- ◆ 이런 질문이나 의견이 나온다면..
 - 탈락자가 없으니 게임이 재미가 없어요.
 - 꼭 게임에서 누군가를 배제시켜야 재미가 있는 것일까요? 모두가 즐거운 게임이 되는 것과 경쟁을 통해 누군가를 탈락시켜 일부가 재미를 얻는 것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것일까요?
 - 놀이에서 경쟁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경쟁하지 않고도 모두가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게임이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모두의 협력을 통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게임을 찾아봅시다. 즐거움의 요소는 그대로 두면서 배제와 차별을 바꿀 수 있다면 더 좋은 놀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짝짓기
게임’
활동하기

7) 진행자가 활동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며 활동을 마무리한다.

 진행자 발언 예시

때로 우리가 놀이라는 이름으로 해왔던 활동이 누군가의 배제를 당연하게 전제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평범한 놀이 속에도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놀이 규칙에서 배제당하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소외의 문제라든지, 규칙에 따라 누군가를 배제할 때 생기는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즐거움이라는 표면 뒤에 배제와 차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 배제와 차별은 특별한 곳이 아닌 일상 속 게임과 놀이 속에도 있을 수 있으며 이런 배제와 차별은 사회적 혐오현상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놀면서 생각하기1-2: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시나요?(40분)

‘당신의 이웃을 사랑 하시나요?’ 활동하기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정해진 질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자리를 바꾸어 앉는 움직임 활동을 통해 긴장감과 어색함을 풀어가는 게임입니다.

- 1) 먼저 커다란 원 형태로 의자를 배치한다. 이때 전체 인원수보다 하나 적게 의자를 배치한다.(예를 들어 참여자가 10명이라면 9개의 의자만 배치)
- 2) 술래 한 명을 정하고, 술래가 앉아 있는 참여자 중 한 명에게 다가가서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한다. 처음에 술래를 정하기 어렵다면 처음 질문자의 역할을 진행자가 할 수 있다.
- 3) 질문을 받은 사람은 “예” 또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다. “예”라고 답할 경우 질문을 받은 사람 양쪽에 앉은 사람이 서로 자리를 바꾸어 앉는다. 이때 술래는 답을 하는 사람의 양쪽에 앉은 사람이 자리를 바꾸는 도중에 비는 자리를 찾아 얼른 앉아야 한다.
- 4) 질문을 받은 사람이 “아니오”라고 답할 경우 술래가 “그럼 어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라고 다시 질문을 하면 질문을 받는 사람이 게임에 참여한 다른 참가자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특징 한 가지’를 지정하여 말한다. 예를 들어 술래의 질문을 받은 사람이 “안경 쓴 사람을 사랑합니다.”라고 하였다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참가자 중 ‘안경을 쓴’ 참가자들은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비어있는 다른 사람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 이때 술래도 비어있는 자리에 얼른 앉으며 자리에 앉지 못한 참가자가 다음 술래가 된다.
- 5) 게임을 4~5회 정도 진행한 후 진행자는 참가자들과 활동을 하며 들었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진행자 질문 예시

◆ 참가자들과 게임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느낌 나누기

- 게임을 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즐거웠나요?
- 가장 재미있었던(혹은 기억에 남는) 질문은 어떤 것이었나요?
- 게임을 하면서 불편하게 느끼거나 생각했던 점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떤 것인가요?
- 만약에 “어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나는 잘생긴(혹은 마른, 통통한) 사람을 사랑합니다”라는 답이 나왔다면 이러한 질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참여자는 없을까요?
- 누군가 게임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한 이웃을 사랑합니다”라는 답 속에 포함되지 못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 다른 사람에게 차별이나 소외로 느껴질 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사랑하는 ‘어떤 이웃’”에 포함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신의
이웃을
사랑
하시나요?’
활동하기

6) 게임 규칙 바꾸기



진행자 질문 예시

- 게임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규칙을 조정한다면 어떤 규칙을 빼거나 새로 넣을 수 있을까요?

도움말

- “어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이나 비교가 되지 않도록 기존의 규칙에서 더하거나 빼서 규칙을 정합니다.(누구나 객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조건. ‘안경 쓴’, ‘**색 옷을 입은’, ‘치마(혹은 바지)를 입은’ 등)
- “저는 모든 이웃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바꿉니다.
- 대안활동을 만드는 과정은 완전히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규칙에서 더하거나 빼는 과정을 통해 게임 진행이 누군가에게 차별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7) 바꾼 규칙으로 게임하기



진행자 발언 예시

- ◆ 이런 질문이나 의견이 나온다면..
- ‘사랑하는 이웃의 조건’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게임은 그냥 재미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 누군가는 재미를 느끼지만 누군가는 소외감을 느끼는 게임 이라면 정말 좋은 게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즐거운 게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누군가를 배제시키며 재미를 얻는 것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8) 진행자가 활동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며 활동을 마무리한다.



진행자 발언 예시

처음부터 참여자보다 의자를 하나 부족하게 준비한다는 것은 이미 구조적으로 앉지 못하는 ‘한 사람’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실제 사회 문제와 연결 지어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와도 같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추상적 질문과 대담으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구조의 문제를 개인의 취향이나 선한 의지로 해결하는 방식은 바람직한 것일까요? 그 속에서 배제와 차별이 조장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 전개활동2는 총 40분으로, 두 가지 활동(2-1, 2-2) 중에서 상황에 맞게 진행자가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개활동 2-1

생각하면서 놀기2-1: 세 가지 상징(40분)

활동 목표

- 평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한 생각을 나누며 서로의 다름을 확인한다.
- 활동을 진행하며 잘못된 정보나 편견으로 인해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나 편견을 갖지 않았는지 살펴본다.
- 사회적 약자 혹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차별의 마음이 겉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인지 하며 참여자 내부에 존재하는 편견을 발견한다.
- 약자 및 소수자와 연대할 수 있는 인권 감수성을 가진다.

'세 가지 상징' 활동하기

준비물:
단어카드
(부록1), 펜,
종이

우리가 가진 어떤 사회적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간단한 그림이나 단어로 형상화하여 퀴즈를 제시하고 맞추는 게임입니다. 서로 문제를 내고 맞추는 형식을 통해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서로 같거나 다른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 1) 진행자는 참가자를 6~8명 정도의 모둠으로 나누어 참가자들의 수만큼 단어카드(이하 '카드')를 준비한다. 이때 카드에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표현한 낱말을 적는다. 이때 '일반적 그룹'을 나타내는 카드와 '소수자 그룹'을 나타내는 카드를 따로 준비하며 각각 같은 카드를 2장씩 준비한다. (<부록1> 참고)
- 2) 진행자는 참가자들에게 먼저 '일반적 그룹' 카드와 '소수자 그룹' 카드가 있음을 알리고 두 그룹의 카드 중에서 무작위로 한 장씩 나누어 주거나 뽑도록 하며, 카드를 받은(뽑은) 참가자는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보여주거나 카드 속 대상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이때 같은 카드가 2장씩 있어 카드의 내용이 중복될 수 있음을 알린다. 또한 진행자는 참가자 중에 소수자 그룹에 해당하는 당사자가 있거나, 참가자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카드를 뽑을 수 있으므로 카드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3) 카드의 내용을 확인한 참가자들은 활동지(빈 종이)에 내가 가진 카드에 적힌 대상을 표현하는 단어나 간단한 그림을 세 가지씩 적거나 그린다.
- 4) 활동지에 표현하는 단어나 그림은 너무 직접적인 설명이 아닌 자신만의 상징이나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나타낸다.

진행자 발언 예시

- 진행자는 활동지에 적힌 소수자 그룹에 대한 상징이나 은유의 표현이 혐오표현이 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도움말

- 예를 들어 '어머니'라고 적힌 같은 카드를 받은 두 사람이 각각 "희생, 그리움, 놀이공원"이라는 단어와 "짜증, 잔소리, 바쁨"이라는 단어로 대상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상징’
활동하기

- 5) 참가자들은 순서를 정해 한 명씩 돌아가며 활동지를 공개한다.
- 6) 발표자가 활동지를 공개할 때 이를 보면서 자신과 같은 카드를 표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활동지를 뒤집어서 내려놓는다.
- 7) 발표자와 활동지를 내려놓은 참가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참여자들은 활동지 속 ‘사회적 존재/대상’이 누구인지 추리하여 맞춰본다.
- 8) 정답을 말한 사람이 있으면 발표자는 정답을 공개하고 왜 그런 단어나 그림을 선택하였는지 다른 참가자들에게 설명해 준다.
- 9) 다음 순서로 발표자와 같은 카드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활동지를 내려놓은 참가자가 자신의 활동지를 공개한다.

도움말

- 이때 먼저 발표한 발표자와 같은 카드였다면 자신은 활동지에 왜 그런 단어나 그림으로 대상을 표현하였는지 이유를 다른 참가자들에게 들려줍니다.
- 자신의 예상과 달리 먼저 발표한 발표자의 카드와 자신의 카드가 가리키는 대상이 다르다면 6번의 과정으로 돌아가 다른 참가들에게 자신의 활동지가 표현하는 대상을 맞출 기회를 줍니다.

- 10) 이렇게 각 참가자들은 돌아가며 자신의 활동지를 공개하고 다른 참가자들에게 답을 맞출 기회를 주며, 답이 공개되면 자신이 그렇게 표현한 이유를 설명한다.
- 11) 발표를 듣는 다른 참가자들 중에서 발표자의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거나 추가 혹은 수정할 정보가 있다면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 12) 각각의 단어는 그것을 적은 참가자의 경험과 대상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이므로 단어를 적은 참가자의 생각을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로 활동을 진행한다.
- 13) 활동하면서 느낀 점을 나눈다.

도움말

- 활동을 진행하며 자연스럽게 참가자들의 힌트지 속에 표현된 대상에 대한 참가자들의 경험과 생각을 함께 나눕니다.
- 같은 대상에 대해서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음을 공감합니다.

14) 더 생각해 볼 점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진행자 질문 예시

- 단어카드에 있는 대상에 대해 활동지에 혐오표현이나 차별적인 표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같은 대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긍정적인 인식의 차이가 생겨나는 까닭은 무엇일까?
-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면서도 혐오나 차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15) 진행자가 활동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며 활동을 마무리한다.



진행자 발언 예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인식의 차이는 개인의 사회적 경험이나 선입견과 맞닿아 있습니다. 같은 대상에 대해 부정적 인식과 긍정적 인식이 공존할 수 있지만 개인의 특수한 경험에 의해 생성된 인식만을 일반화하게 되면 대상에 대한 편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개인은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험에 대한 학습을 통해 대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폭넓은 인식을 쌓게 됩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공존하려면 서로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대상에 대한 생각이나 인식이 치우친 정보와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는 스스로의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릇된 시선으로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갈등과 충돌을 피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나 스스로와 이웃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활동을 정리할 때 함께 보면 좋을 영상: 편견의 원인과 사례>

- [EBSi]가만히 생각해보면 차별할 이유가 없는데
<https://youtu.be/BerDVj5eCyo>
- [현대차정몽구재단] 편견에서 시작된 친절은 편견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vr10BU_a2C0



‘일반적 그룹’카드 (2장씩 준비)

어머니

여성

교사

군인

아버지

남성

종교인

의사

‘소수자 그룹’카드(2장씩 준비)

정신
장애인

이슬람
난민

발달
장애인

이주
노동자

학교 밖
청소년

성소수자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자녀

준비물:
비밀 단어
카드 A세트
(부록2),
스케치북
보드판,
지우개
달린 얇은
마카펜

도입활동(열기)을 통해 참여자는 ‘나’를 표현하는 서로 다른 단어에 대해 생각해보며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간은 다양한 소개 카드로 꾸며져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주세요. ‘Who are you?’ 활동은 최대 8인이 참여할 수 있는 모둠 활동으로 주어진 단어 카드에 나와 있는 단어를 스케치하고 다른 참여자가 그린 것을 번갈아 추측하여 맞히는 게임입니다.

도움말

- 이 활동은 보드게임 <텔레스트레이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재구성하였습니다.
텔레스트레이션 게임에 필요한 준비물이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아래는 <텔레스트레이션> 보드게임 진행 영상입니다.

- [Dev.all] 텔레스트레이션

<https://www.youtube.com/watch?v=SOOrL1A0r3o>

- 'Who are you?' 활동 진행 참고 자료

1) 'Who are you?' 게임 준비물



스케치북 보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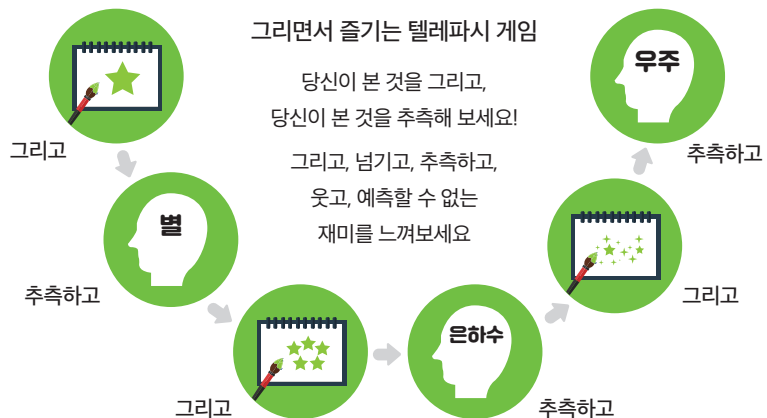


단어카드



얇은 마카펜

2) 'Who are you?' 게임 진행과정



‘Who are you?’
연습게임
체험하기
(40분)

- 1) 개인 스케치북 보드판에 자신의 이름(혹은 닉네임)을 적는다.
 - 2) 진행자는 모든 참여자에게 비밀 단어 카드를 한 장씩 제공한다.
 - 3) 각 카드에는 하나의 단어가 적혀 있다. 참여자가 단어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제공한다. 아직 단어가 무엇인지 공개해서는 안 된다.
- * 연습게임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그림으로 표현하기 쉬운 단어이다.

‘Who are you?’ 비밀 단어 카드 A세트 예시 자료

바나나	코끼리	토끼	당근	컴퓨터
책	가위	지우개	연필	휴대폰

*<부록2> 참고

- 4) <참여자가 홀수인 경우> 스케치북 맨 앞의 정답칸에 단어를 적고 다음 장으로 넘긴 뒤 왼쪽 사람에게 전달한다.
<참여자가 짝수인 경우> 정답칸에 단어를 적고, 한 장을 넘겨 그림을 그린 뒤, 다음 장으로 넘겨 왼쪽 사람에게 전달한다.
(스케치북이 다시 주인에게 돌아오기 전 마지막 사람이 최종 추측 단어를 적도록 하기 위함.)
- 5) 스케치북을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면 진행자는 60초의 시간을 센다.
- 6) 넘겨진 책을 받아 앞의 페이지가 그림이면 그림을 보고 단어를 추측해서 적고, 앞의 페이지가 단어이면 단어를 보고 연상되는 그림을 그린다.
- 7) 제한 시간이 지나면 스케치북 한 장을 넘겨 왼쪽 사람에게 넘긴다.
(항상 스케치북을 왼쪽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자신이 적은 단어나 그림을 미리 볼 수 없도록 한 장을 넘겨 전달하도록 안내)
- 8) 여러 사람을 거쳐서 마지막엔 본래 주인에게 스케치북이 돌아올 때까지 진행한다.
- 9) 스케치북 주인은 정답을 공개하고, 한 장 한 장 스케치북을 넘기며 단어가 어떻게 표현되거나 바뀌었는지, 생각이 똑같았는지를 보여준다.
- 순서 : 정답 → (1)그림 → (2)추측 단어 → (3)그림 → (4)추측 단어 → (5)그림 → (6)추측 단어 → (7)그림 → (8)추측 단어
- 10) 진행자는 단어와 이미지가 왜곡되어 표현되는 순간에 주목하여 참여자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린다.

**‘Who are you?’
생각하는
게임하기**

준비물:
비밀 단어
카드 B세트
(부록2),
스케치북
보드판,
지우개
달린 얇은
마카펜,
종이와 펜

진행자 발언 예시

- 제한된 정보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만나 왜곡된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주 접하는 단어임에도 정보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다면 왜곡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 1) 비밀 단어 카드 A세트를 회수하고 B세트를 나누어 준다. 진행자는 참가자 중에 소수자 그룹에 해당하는 당사자가 있거나, 참가자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카드를 뽑을 수 있으므로 카드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이번에 사용하는 단어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혐오표현의 대상자이다.

‘Who are you?’ 비밀 단어 카드 B세트 예시 자료

동양인	흑인	백인	외국인	이주민
성소수자	남성	여성	노동자	감염병 확진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청소년	어린이	초등학생
엄마	군인	페미니스트	커플	부부

*<부록2> 참고

- 2) 게임 진행방식은 연습게임과 같음을 알리고 규칙을 상기시킨다.
- 3) 게임이 끝난 뒤 단어 혹은 그림이 왜곡된 지점을 중심으로 혐오와 차별 요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도움말

- ‘생각하는 게임’ 단계에서는 주인에게 스케치북이 돌아오면 정답을 크게 발표하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림과 단어를 모두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 정답 단어와 최종단어 달라졌거나, 참여자가 반응(웃음, 불쾌함 등)을 보이는 지점에서 작성자에게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혹은 “왜 이 단어를 추측했는지” 질문해봅니다.
- 비밀 카드 B세트는 쉽게 혐오표현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혐오표현이 웃음 속에 가려져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꼭 언급하며 그림이 바뀌어 나가는 지점을 함께 되짚어 봅니다.

‘Who are
you?’
생각하는
게임하기

- 4) 스케치북 그림과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눈 뒤, 각자 뽑았던 정답 카드의 단어를 종이 혹은 포스트잇에 적어 소개 카드가 붙어 있는 공간 곳곳에 함께 붙인다.

도움말

- 도입 활동을 떠올리며 ‘○○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에 담긴 차별, 편견, 혐오에 대해 생각해보고 의견을 나눕니다.
- 자신이 뽑았던 단어를 종이에 ‘나라는 사람이 이 공간에 존재하듯 카드에 적힌 사람은 나와 같이 평등하게 존재하는 사람임을 알립니다.

- 5) 활동을 마무리한다.

진행자 발언 예시

- ‘Who are you?’ 활동을 통해 우리는 다름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왜곡된 이미지를 발견했습니다. 연습게임에서도 경험했듯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조차 충분한 정보가 없을 때, 그 존재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상기시켜주세요. 우리는 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고, 어디에선가 마주치는 다양한 사람을 알아갈 필요가 있으며, 단편적인 정보와 혐오표현으로 인해 참여자가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해 어떠한 편견을 내재화하고 있는지 성찰해보며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 소수자 관련 혐오표현 신문기사(진행자 읽기 자료) >

- [경향신문] 계집애 같다, 여자 주제에, 게이냐...약자 울리는 혐오표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02192141015

**‘Who are you?’ 비밀 단어카드 A세트 예시**

(한 모둠에 8장씩 선택, 참여자 수를 고려하여 준비)

바나나

휴대폰

코끼리

연필

토끼

지우개

당근

가위

컴퓨터

책

‘Who are you?’ 비밀 단어카드 B세트 예시

(한 모둠에 8장씩 선택, 참여자 수를 고려하여 준비)

동양인

흑인

백인

외국인

이주민

성소수자

남성

여성

노동자

감염병
확진자시각
장애인청각
장애인

청소년

어린이

초등학생

엄마

군인

페미
니스트

커플

부부

전개활동
3

한 번 더 생각하기: 인터넷 밈(짤)에 담긴 웃음과 혐오(30분)

활동
목표

- 청소년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미디어 안에서 혐오와 차별의 요소를 발견하고 성찰한다.

‘밈(짤)에
담긴
웃음과
혐오’
활동하기

준비물: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PC

‘밈(Meme)’이란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서 문화의 진화를 설명할 때 처음 등장한 용어로 ‘인간의 유전자(gene)처럼 자기복제적 특징을 가지며 모방과 패러디를 통해 확산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밈은 영상, 이미지, 말과 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짤은 이미지를 활용한 밈의 한 형태입니다. 밈은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청소년 사이에서 하나의 유행과 유머 코드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특정 대상이 밈화(化)를 거치며 약자 혐오나 소수자 차별의 효과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본 활동은 참여자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밈이나 짤에 담긴 혐오와 차별의 요소를 발견하고 성찰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1) 진행자는 인터넷을 검색하여 참여자에게 최근 유행하는 밈의 예시를 보여준다. (밈의 개념을 알 수 있도록 간단히 설명한 뒤, 혐오·차별 문제와 얽혀있는 밈뿐만 아니라 다양한 밈을 제시함.)



Coffin Dance의 한 장면



블랙페이스와 관짝밈화

2)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밈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며 참여자와 밈이나 짤을 사용한 경험을 자유롭게 나눈다.



진행자 질문 예시

- Q. 어떠한 밈을 사용하나요?
- Q. 어떤 상황에서, 언제 그 밈을 사용하나요?
- Q. 누구에게 주로 그 밈을 사용하나요?
- Q. 누구와 주로 그 밈을 주고 받나요?
- Q. 왜 그 밈을 사용했나요?

- 3) 사용자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최근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자신이 사용했던 밈 혹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밈을 찾아 화면에 띄워놓는다.
- 4) 참여자가 자신이 찾은 밈을 하나씩 발표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진행자 질문 예시

- Q. 이 밈을 사용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Q. 이 밈이 웃음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 이 밈으로 인해 기분이 상하는 친구는 없을까요?

- 5) [닷컴페이스] 저 아세요? 사실 저는요... 시청한다.
<https://youtu.be/ghU83FybBlo>
- 6) 함께 밈을 다시 보며 어떤 부분이 불편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눈다.
- 7)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나 차별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밈은 자신의 SNS나 갤러리에서 삭제한다.
- 8) 활동을 마무리한다.

도움말

- 본 활동이 모든 밈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리고, 밈 사용을 금지하는 활동이 아님을 반드시 알려주세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웃음이나 조롱거리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느껴볼 수 있도록 정리해주세요.

< 진행자 참고 자료 >

- 1) [더인디고] 밈의 경계, 그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https://theindigo.co.kr/archives/12104/>
- 2) 밈(틱톡 챌린지)의 긍정적인 효과
[중앙일보] 코로나로 힘든 시기, 서로 응원하는 따뜻한 소통으로 극복해요
<https://news.joins.com/article/23782873>
- 3) 혐오·차별적인 밈
[스브스뉴스] 000 한국인 최고"가 인종차별? 미국 내 루프 코리안 밈 유행이 쓸쓸한 이유 https://youtu.be/fhGqvz_CJck
- 4)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을 멈춰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igi9VIFNa6A>

마무리
활동

맺기 : 입 없는 아이 이야기 (40분)

활동
목표

- 그림책 '입 없는 아이' 이야기를 통해 편견과 혐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 편견과 혐오를 버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다가가기 위한 행동을 찾을 수 있다.

‘입 없는
아이’
활동하기

준비물:
동영상
자료,
포스트잇
필기구

맺는 활동은 작가 박범의 그림책 <입 없는 아이>를 통해 평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두려움에 대해 생각해 보는 활동입니다.

- 1) 진행자는 아래 그림을 보여주며 주어진 질문을 통해 참가자들의 생각을 함께 나눈다.



< 박범, '입 없는 아이', 이집트출판사 삽화 중에서 >



진행자 질문 예시

- 그림 속 인물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사람들은 그림 속 인물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요?
- 그림 속 인물이 살면서 겪었을 일에 대해 상상해 봅시다. 좋았던 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 2) 다음 영상을 보고 진행자는 질문을 통해 참가자의 생각을 함께 나눈다.

[이집트출판사] 입 없는 아이

<https://youtu.be/YcvifR6yxnw>



진행자 질문 예시

- 내가 파란 방과 노란 방, 빨간 방과 초록 방에서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 실제 현실 속에서 파란 방과 노란 방, 빨간 방과 초록 방의 사람들과 비슷한 처지나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4번 활동에서 심화)
- 현실의 나는 이야기 속 파란 방과 노란 방, 빨간 방과 초록 방의 사람들과 비슷한 처지나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본 적이 있나요? 그때 나의 행동은 이야기 속 나와 어떤 점에서 같거나 달랐나요?
- 혹시 나는 이야기 속 파란 방과 노란 방, 빨간 방과 초록 방의 사람들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그때 나의 생각이나 느낌은 어땠나요?

3) 다음 영상 중 하나를 골라 참가자들과 함께 시청하며 우리 사회의 혐오차별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본다.

- 인종차별

[Procter & Gamble] The Look

<https://youtu.be/bxZBtWGYV1c>

- 소수자 혐오

[SBS] 혐오 발언 쏟아낸 '이루다'

<https://youtu.be/nXY8uInNP7o>

- 온라인 혐오 피해

[연합뉴스 TV] 온라인 혐오 피해 극심

<https://youtu.be/zpM1r6fh8IM>

4) 우리가 학교나 마을, 혹은 영화나 드라마, 뉴스 등을 통해 접했던 사람들 중 파란 방이나 노란 방, 빨간 방과 초록 방에 있던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가진 편견이나 두려움, 혐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포스트잇에 적어 활동 공간의 빈 벽이나 게시판에 붙인다.

5) 참가자가 적은 게시물(포스트잇)을 분류해 보고 실제 참가자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차별의 사례를 들어본다.

6) 다음 활동에서는 차별 없는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가자가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찾아보고 실천해 볼 예정이라는 것을 예고한다.

7) 느낌 나누기

도움말

- ‘입 없는 아이’ 이야기를 보고 들었던 생각이나 느낌 나누기
- 오늘 활동을 통해 참가자가 느낀 점 나누기

‘입 없는
아이’
활동하기

8) 진행자가 활동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며 활동을 마무리한다.

 진행자 발언 예시

사람들이 자기가 잘 모르는 대상에 대해 직접 겪어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듣거나 알게 된 일부의 정보만을 가지고 상상한 모습은 실제 그 대상과는 동떨어진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겪어보지 못한 낯선 대상에 대해 호기심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상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이나 정보를 들었다면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은 더욱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대상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오늘 접한 ‘입 없는 아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정말 ‘죽을 만큼’의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두려움과 편견을 극복할 수 있다면 좀 더 다양한 친구와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회기
혐오표현
알아보기

활동 안내



2회기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혐오표현의 개념과 그 해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1회기에서 우리 안의 차별과 혐오의 감정, 사회 속에서 그러한 감정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인식했다면, 2회기에서는 '혐오표현'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주목하여 이것이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혐오표현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이것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활동 목표



- 혐오표현의 개념을 이해한다.
- 혐오표현의 정의와 종류, 개인적·사회적 해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준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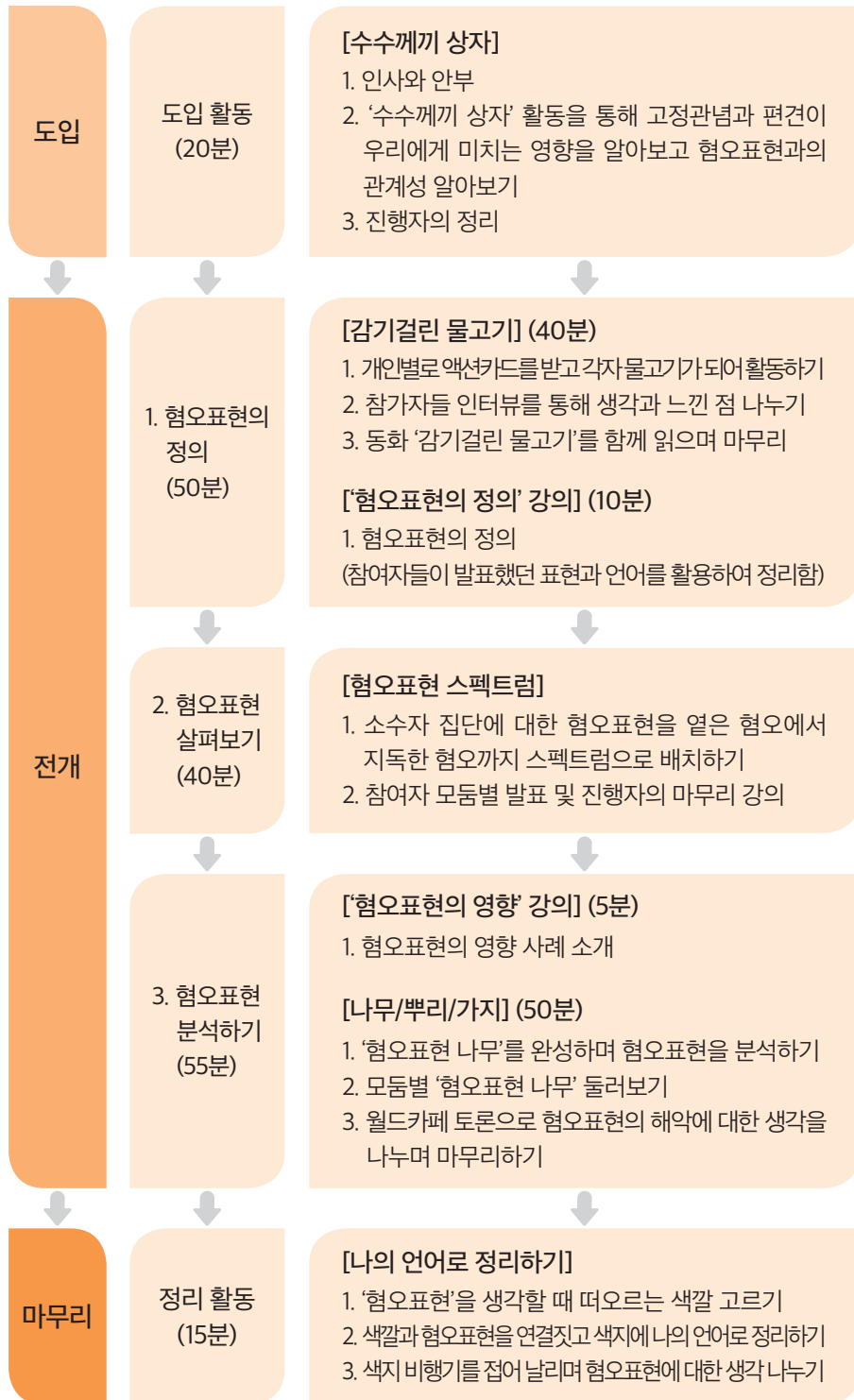


- 참가자 준비물: 간단한 필기 도구
- 진행자 준비물

준비물	필요한 순간	대체 가능 준비물
구멍이 뚫려있는 상자 2개, 상자를 덮을 천 2개, 상자 속에 넣을 물건 2개, 안대 2개, 귀마개 2개, 모둠별로 힌트를 적어서 제출할 포스트잇(또는 종이)	<도입>에서 '수수께끼 상자'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합니다.	- 구멍 뚫린 상자와 상자를 덮을 천 대신 안이 보이지 않는 검은 비닐봉지로 대체 가능합니다. - 안대와 귀마개가 없다면 잠시 밖에 나가 있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색깔 밴드(색종이를 길게 잘라 손목에 두를 수 있는 형태로), 액션 카드, 칭찬스티커, 동화책 「감기걸린 물고기」	<전개1>에서 '감기 걸린 물고기 놀이' 활동을 위해 필요합니다.	- 색깔 밴드는 손목에 두를 수 있는 형태면 무엇이든 가능 하고, 아니라면 색이 다른 도트 스티커여도 충분합니다. - 칭찬스티커는 하트나 별 등 예쁜 모양의 스티커로 대체 가능합니다.

준비물	필요한 순간	대체 가능 준비물
전지, 색연필 및 매직 세트, 테이프나 풀 등	<전개2>와 <전개3>에서 조별로 활동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전지 사이즈의 큰 종이면 가능 합니다. - 다양한 색깔의 필기구가 준비 되면 좋겠습니다.
정체성 카드, 혐오표현 목록 활동지, '혐오표현 스펙트럼' 색깔 스펙트럼지	<전개2>에서 필요한 정체성 카드, 혐오 표현 목록 활동지(부록5), '혐오표현 스펙 트럼' 색깔 스펙트럼지(부록6)을 <전개 2>의 설명과 (부록4)을 바탕으로 준비 해주세요.	
혐오표현 나무 활동지(전지에 나무가 인쇄된 것)	<전개3>에서 '나무/가지/뿌리' 활동을 위해 필요합니다.	- 전지 사이즈로 활동지를 인쇄 하기 어려운 경우, 전지에 나무 (뿌리,몸통,가지)를 직접 그려 도 충분합니다.
색지(A4), 필기도구	<마무리>에서 '나의 언어로 정리' 활동 을 위해 필요합니다.	- 색종이로 대체 가능합니다.

활동 과정



활동 세부 내용



도입활동

수수께끼 상자(20분)

활동 목표

- 모르는 대상에 대해 주어지는 정보의 차이에 따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 그리고 이로 인해 드러나는 표현 방식의 차이를 이해한다.
- 이를 통해 고정관념과 편견이 혐오표현과 어떠한 관계성을 지니는지 깨닫는다.

인사 나누기 (2분)

새로운 회기의 시작을 안내하고 지난 시간에 설정했던 '다름을 존중하는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수수께끼 상자 (15분)

준비물:
구멍이
뚫려있는
상자 2개,
상자를
덮을 천
2개, 상자
속에 넣을
물건 2개,
모둠별로
힌트를
적어서
제출할
포스트잇
(또는 종이)

이 프로그램은 상자 속에 들어 있는 물건을 촉감과 주어진 힌트만으로 추리하는 게임입니다. 지원자 2명은 앞으로 나와 각각 A와 B 상자 안에 있는 물건을 추리합니다. A와 B 상자에는 같은 물건이 들어 있지만 두 지원자는 알지 못하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자들은 물건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합니다.

- 1) 진행자가 활동의 방법과 목적에 대해 안내한다.
- 2) 진행자는 지원자 2명을 받아 앞으로 부른다.
- 3) 진행자는 두 지원자에게 안대와 귀마개를 주고 남은 참가자들과의 대화를 들지 못하게 한다. (안대와 귀마개가 없다면 잠시 밖에 나가있도록 한다)
- 4) 남은 참가자들에게 먼저 물건을 공개하고, 모둠별로 이 물건에 대한 힌트를 준비하도록 한다. A상자를 맡은 지원자에게는 긍정적인/호의적인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힌트를, B상자를 맡은 지원자에게는 부정적인/두려운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힌트를 만들도록 한다. (긍정 또는 부정 힌트를 모둠별로 한 가지 만들도록 한다)
- 5) 힌트는 포스트잇에 적어 진행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이 때, A상자와 B상자 힌트는 각각 다른 색 포스트잇을 활용해도 좋다)



수수께끼
상자
(15분)

 진행자 발언 예시

- 지금부터 이 물건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 호의적인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힌트를 한 가지 만들어주세요.
- 지금부터 이 물건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 두려움, 낯섬을 느낄 만한 힌트를 한 가지 만들어주세요.
- 예시)

	A상자 (긍정적 힌트)	B상자 (부정적 힌트)
양말	따뜻해요, 보호해줘요, 알록달록해요, 부드러워요	더러워요, 냄새나요, 만지고 싶진 않아요
연필	공부할 때 꼭 필요해요, 자주 사용해요, 매일 보는 물건이에요	뽕족해요, 위험해요, 손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슬라임	시원해요, 말랑말랑해요, 재미있는 느낌이에요	촉촉해요, 더러워요, 찝찝해요

- 6) 두 지원자가 돌아오면 각 지원자에게 돌아가며 한 가지씩 힌트를 주면서 먼저 물건을 유추해보게 한다.
- 7) 힌트만을 듣고 유추해 본 후에 상자에 손을 넣어 물건을 확인하고 다시 한 번 유추하게 한다.
- 8) 상자에 손을 넣어 확인할 때 참가자들은 A 상자와 B 상자를 맡은 각 지원자의 몸의 표현, 표정, 감정을 잘 관찰하도록 한다.
- 9) 지원자 두 사람에게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물어보고, 참가자들에게 지원자의 표정, 몸짓 언어가 어땠는지 물어본다.

 진행자 질문 예시

- (지원자 A, B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 힌트를 듣고 상자에 손을 넣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어떤 힌트에서 멈췄고, 어떤 힌트에서 용기를 얻었나요?
- (참가자들에게) 각 힌트를 들을 때 지원자 A와 B의 표정은 어땠나요? 몸짓 언어는 어땠나요?

1) 참가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수수께끼 상자' 활동의 목적에 대해 설명한다.

진행자 발언 예시



-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겪거나 알아보기 전에 다른 사람들로 얻은 정보를 통해 대상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사전에 제공되는 정보들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정확할 수도 있지만 정보제공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편견을 갖게 할 수도 있음을 이 활동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 두려움, 낯섦.. 이러한 감정은 자연스러운 수 있지만, 언어나 표정, 몸짓 등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표현되었을 때는 차별로 드러날 수 있어요 (그림을 함께 소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온라인 혐오표현과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2) 고정관념과 편견이 혐오표현과 어떤 관계성을 지니는지 간단히 정리하며 혐오표현이라는 오늘의 주제를 소개한다.

진행자 발언 예시

- 어떤 대상에게 '두려움이나 낯섦'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것이 부정적이거나 공격적인 언어와 표정, 몸짓 등으로 전달된다면 어떨까요? 더구나 그 대상이 사회적 약자이거나 소수자로서 일상적인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자신이 던진 혐오의 표현이 대상에게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 “흑인은 운동을 잘한다”, “여성은 대체로 상냥하다”와 같이, 겉으로는 긍정적인 것 같은 고정관념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관념이 특정 집단에 속하는 모든 개개인을 하나의 차원으로 축소, 획일화하거나 그들의 본질, 특성으로 그들의 행동, 태도를 설명하고자 한다면(“본질화”), 결국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이러한 고정관념은 결국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혐오표현’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도움말

- 긍정적 또는 부정적 힌트를 생각하고 발표하는 중에 ‘흰 것=깨끗함, 까만 것=더러움’과 같은 편견이 드러난 표현을 사용하는지 지켜봐 주세요. 그 순간에 개입하기보다는 마무리를 할 때 오늘의 주제인 혐오표현과 연결 지어 함께 성찰해볼 문제로 언급해 주세요.

- [짜깁TV] 눈 가리고 상자 속 물건 맞히기
https://youtube/5lp3wSii_QA

전개활동
1

혐오표현의 정의(50분)

활동
목표

- 몸 활동을 통해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의 입장을 경험해본다.
- 혐오표현의 정의를 안다.

감기
걸린
물고기
(40분)

준비물:
3가지 색깔
밴드
(색종이를
길게 잘라
손목에
둘 수
있는 형태),
액션 카드,
칭찬
스티커,
동화책
「감기걸린
물고기」

혐오표현을 직접 마주하기 전에 흔히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혐오표현을 직접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혐오가 일어나는 과정을 경험하고, 누구든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면서 소외와 배제의 감정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활동의 내용은 그림책 「감기걸린 물고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Part 1. 활동 준비

- 1) 무작위로 색깔 밴드를 뽑아 착용한다. 참가자는 해당 색깔의 물고기가 된다.
- 2) 의자로 커다란 원(테두리)을 만들고 참가자들이 안에 들어가게 한다.
- 3) 진행자는 활동을 설명한다.
 - 원(테두리): 평화로운 바다, 물고기의 터전
 - 참가자: 각 색깔의 물고기

Part 2. 예비 활동

- 1) 본격적인 활동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고기가 된 놀이 상황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는다. 진행자는 발랄한 음악을 틀어주며 참가자들의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돕고, 참가자들은 공간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탐색한다.
- 2) 음악에 맞춰 공간을 움직이도록 한다. 이 때 참가자들에게 첫 번째 미션을 준다. (2분간)

<예비 활동 첫 번째 미션>

- 참가자 한 사람당 칭찬 스티커를 6개 내외로 나누어 준다.
- 음악에 맞춰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단, 말을 하지 않는다.
- 움직이다가 눈이 마주쳐 교감하게 된 사람의 손등에 스티커를 붙여준다.



< 박정섭, 「감기걸린 물고기」, 사계절출판사 >

3) 한 번 더 반복한다. 이 때 참가자들에게 두 번째 미션을 준다. (3분간)

<예비 활동 두 번째 미션>

- 음악에 맞춰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다.
-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나와 다른 색깔의 물고기 친구를 한 명 이상 만난다. (자유롭게 다니다가 눈이 마주쳐 교감하게 된 사람과 인사를 한 후 친구가 되어 새끼 손가락을 걸고 함께 움직인다.)

4) 진행자는 본활동에 앞서 참가자들이 충분히 적응했는지 확인한다. 간단히 기분이나 감정을 묻는 것도 좋다.

Part 3. 본활동

1) 본 활동을 위해 참가자들은 각 색깔별로 나와 액션 카드를 각자 1개씩 뽑는다. 다른 물고기들은 카드의 내용을 모르게 한다.

※ 색깔물고기 액션카드 예시 <부록1 참조>

노란색
물고기용

빨간색, 파란색 물고기 3명 이상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그 물고기의 이름/별명/가장 좋아하는 색깔/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알아주세요. (3~5가지의 액션을 섞어 준비한다)

빨간색
물고기용

자유롭게 터전을 돌아다니며 즐겨요. 다른 물고기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유심히 지켜봐요.

파란색
물고기용

- 1) 노란색 물고기 중에는 범죄자가 많대요.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위험해지는데 빨간 물고기는 모르고 있나봐요. 빨간 물고기 3마리에게 몰래 알려주세요.
- 2) 노란색 물고기는 감기에 걸렸어요. 노란색 물고기를 피해다니세요.
- 3)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데 그게 노란색 물고기에서 처음 시작됐대요. 나도 걸릴까봐 너무 무서워요. 우리의 터전에서 내쫓아요.

2) 참가자들은 액션 카드의 내용을 참고해서 원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한다.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다. (3분간)

※ 이 때 진행자는 음악을 틀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단, 전체적인 분위기가 장난스럽게 흐르지 않도록 유의하고, 과도하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미리 참가자들에게 공지한다.

3) 3분이 지난 후 참가자 인터뷰를 진행한다.

감기
걸린
물고기
(40분)



진행자 질문 예시

- 파란색 물고기가 되어 어떻게 행동했나요?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나누어주세요.
- 노란색 물고기가 되어보니 어떤 감정이 들었고, 왜 그렇게 느꼈는지 이유를 나누어주세요.
- 빨간색 물고기는 어떤 상황을 목격했나요? 파란색 물고기와 노란색 물고기에 대해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물고기 터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각각 물고기들은 이 곳에서 안전함을 느꼈나요?

4) 그림책의 장면을 함께 보며 마무리를 한다. (책을 소장하고 있다면 전체 내용을 다 보는 것이 좋고, 없다면 <부록2> 참조할 수 있다)

※ ‘감기걸린 물고기’ 그림책을 공간 뒤나 옆에 전시해놓고 쉬는 시간에 자유롭게 관람하도록 해도 좋다.

‘혐오
표현의
정의’
강의
(10분)

준비물:
강의자료
(부록2)

혐오표현의 개념과 간단한 사례를 학습자에게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표현이 혐오표현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보다는 ‘누구를 향하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결과적으로 어떠한 해악이 미치는지’를 참가자들에게 전달해주세요. 더불어 ‘나쁜 말’과 ‘혐오표현’은 어떤 부분에서 같고 다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세요. 진행자 스스로 <부록3>의 강의자료를 잘 숙지하여 설명해주세요.

1) 진행자는 앞선 활동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설명을 시작한다.



진행자 발언 예시

- 우리가 봤던 <감기 걸린 물고기> 그림책에 나타난 혐오표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활동에서는 어떤 모습들이 혐오표현에 가까울까요? (파란색 물고기에게 주어진 말들, 노란색 물고기를 피하고 꺼리는 행동이나 몸의 언어들..)
- 이처럼 혐오표현은 말, 행동, 복장 등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2) 혐오표현에 관한 강의를 진행한다. * <부록3>, <부록4> 참고

3) 앞선 활동에서 혐오표현에 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참가자 발언이 있었다면 짚어서 설명한다.



부록 1

<전개활동 1> 색깔 물고기 액션카드(예시)
- 인원수에 맞게 준비

빨간색 물고기 3명 이상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그 물고기의 이름과 별명을
알아주세요.

빨간색 물고기 3명 이상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그 물고기의 가장 좋아하는
색깔을 알아주세요.

빨간색 물고기 3명 이상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그 물고기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알아주세요.

파란색 물고기 3명 이상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그 물고기의 이름과 별명을
알아주세요.

파란색 물고기 3명 이상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그 물고기의 가장 좋아하는
색깔을 알아주세요.

파란색 물고기 3명 이상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그 물고기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알아주세요.

자유롭게 터전을 돌아다니며
즐거요. 다른 물고기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유심히
지켜봐요.

자유롭게 터전을 돌아다니며
즐거요. 다른 물고기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유심히
지켜봐요.

자유롭게 터전을 돌아다니며
즐거요. 다른 물고기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유심히
지켜봐요.

자유롭게 터전을 돌아다니며
즐거요. 다른 물고기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유심히
지켜봐요.

자유롭게 터전을 돌아다니며
즐거요. 다른 물고기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유심히
지켜봐요.

자유롭게 터전을 돌아다니며
즐거요. 다른 물고기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유심히
지켜봐요.

노란색 물고기 중에는 범죄자가
많대요.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위험해지는데 빨간 물고기는
모르고 있나봐요. 빨간 물고기
3마리에게 몰래 알려주세요.

노란색 물고기는 감기에
걸렸어요. 노란색 물고기를
피해다니세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데 그게 노란색
물고기에서 처음 시작됐대요.
나도 걸릴까봐 너무 무서워요.
우리의 터전에서 내쫓아요.

노란색 물고기 중에는 범죄자가
많대요.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위험해지는데 빨간 물고기는
모르고 있나봐요. 빨간 물고기
3마리에게 몰래 알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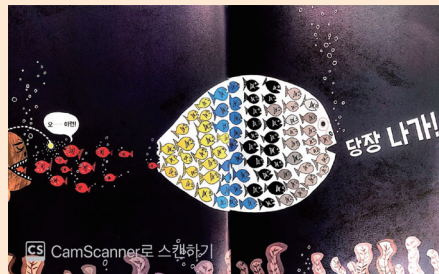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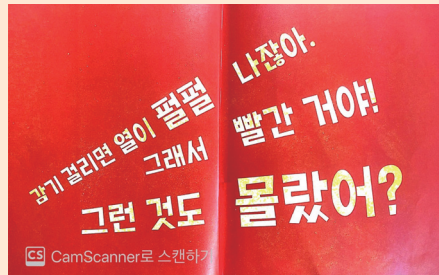
노란색 물고기는 감기에
걸렸어요. 노란색 물고기를
피해다니세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데 그게 노란색
물고기에서 처음 시작됐대요.
나도 걸릴까봐 너무 무서워요.
우리의 터전에서 내쫓아요.



부록 2

<전개활동 1> 그림책 『감기걸린 물고기(박정섭)』 일부



< 박정섭, '감기걸린 물고기', 세계절출판사 >



부록 3

전개활동 1 : '혐오표현 정의'에 대한 강의자료
(진행자 발언 예시)

여러분, 혐오표현에 대해 알고 있나요? 일상적인 의미의 '혐오'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말하죠. 거부감이 든다거나 가까이하고 싶지 않은 어떤 것을 떠올릴 때 '혐오'라는 감정을 함께 떠올리곤 해요. 그러나 사회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혐오표현'이란 단순한 감정만을 뜻하지는 않아요. 국제 사회에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상황과 이유를 살펴보면 혐오가 단순히 '무언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혐오표현이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사상,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정체성 및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게 ①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②차별, 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혐오표현'이란,

- 특정한 속성을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하여

- 말이나 글, 몸짓, 기호 등을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 특정 집단을 모욕, 비하, 멸시, 위협하거나 이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조장하는 효과를 가진 표현입니다.

혐오표현에 대해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특정 단어나 표현으로 어떤 것이 혐오표현이고 아닌지 간단히 구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어떤 언행이 혐오표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사용했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말이나 글, 행동이 아니라 특정 집단에게 선입견이나 편견을 드러내는 옷이나 상징물을 만들어 전시하거나 보여주는 것, 혐오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 모두가 혐오표현일 수 있습니다. 해당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이 그 표현으로 인해 공동체 안에서 행동의 제약을 받거나 위축된다면 그것은 혐오표현입니다.



부록 4

전개활동 1 : ‘혐오표현과 욕설은 같은 말일까요?’ 강의 자료

혐오표현 리포트에 따르면 혐오표현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① 편견을 가지고 특정 집단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일반화하거나 불쾌감을 나타내는 “모욕형 혐오표현”

(ex) 성별을 근거로 ‘김치녀, 쿡광이’ 등 / 나이를 근거로 ‘급식충, 툇딱충’ 등 / 종교를 근거로 ‘이슬람은 테러리스트’ 등 / 인종이나 출신 국가를 근거로 ‘짱깨, 흑형, 다문화’ 등 / 장애를 근거로 ‘병신, 결정장애’ 등 / 성적체성이나 성적지향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전제로 하여 ‘게이/레즈같다’ 라고 말하는 것, 호모새끼, 젠신병자 등

② 편견에 근거하여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심이나 적대심을 갖도록 하는 “선동형 혐오표현”

(ex) 난민은 거짓말로 국내에 들어온 것이니 추방해야 한다, 성소수자 때문에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면 정치적 혼란이 온다, 여성에게 큰 일을 맡기면 회사가 어려워진다 등

혐오표현은 반드시 ‘욕설’의 형태는 아닙니다. “우리는 성소수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자 반대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의 예시처럼, 어떠한 표현이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거나, 그러한 편견을 더 조장한다면 부드럽게 들리는 말도 ‘혐오표현’이 될 수 있어요.



전개활동
2

혐오표현 살펴보기 (40분)

활동
목표

-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한다.
- 소수자를 향하는 혐오표현의 예시를 보며 각각의 문제점과 해악을 분석한다.
- 누구나 혐오표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성찰하지 않으면 누구나 혐오표현의 발화자가 될 수 있음을 안다.

혐오표현
스펙트럼

준비물:
정체성
카드, 혐오
표현 목록
활동지,
색깔표
스펙트럼,
전지,
색연필 및
매직 세트,
테이프나
풀 등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혐오표현을 살펴봄에 혐오표현의 당사자 집단에게 혐오표현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에서 각 모둠은 소수자 집단의 정체성을 부여받으며, 소수자가 되어 5~6가지의 혐오표현을 마주합니다. 활동을 통해 느껴지는 감정에 집중하며 모둠 내 토론을 진행하고, 각 혐오표현이 가지는 농도와 부정적 효과에 대해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활동 유의사항: 교육 참가자들 중에 해당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참가자를 세심히 살펴보고 사례를 제시할 때 더 적절하고 안전한 방식을 택하세요. 사전에 참가자 구성에 대해 파악하여 다양한 소수자 집단의 사례를 준비하거나, 활동 목표와 상황에 맞추어 특정 소수자 집단의 사례에 집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 1) 진행자는 참가자들을 4~6명씩 묶어 소그룹을 구성한다.
- 2) 참가자들은 그룹별로 한 가지 소수자성이 적힌 정체성 카드를 부여 받는다.

정체성 카드 예시 자료

난민/이민자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페미니스트	청소년	

- 3) 참여자들이 각자 부여받은 정체성 카드의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도록 눈을 감고 진행자의 질문을 듣는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



진행자 질문 예시

- 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외모, 표정, 옷차림 등을 상상해봅시다.
- 나에게 가장 편한 공간은 어디일까요? 두려움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곳은?
- 사람들이 많은 광장에 나간다고 생각해봅시다. 나의 기분은 어떤가요?

- 4) 그룹별로 혐오표현이 담긴 활동지를 받는다. *<부록5> 참고

- 5) 본인이 혐오표현의 대상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가장 '덜 심각한' 표현부터 '가장 심각한' 표현까지 순서를 매긴다.
- 6) 순서를 매긴 혐오표현들을 하단의 스펙트럼지에 배치한다. *<부록6> 참고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표현(열은 혐오)'은 아래쪽에, 상대적으로 '더 무겁고 심각한 표현(짙은 혐오)'은 스펙트럼 위에 오도록 배치한다.)

도움말

1. 전반적인 활동의 과정에서 모둠원들끼리 활발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분류하는 것 자체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둠원들과 소통하며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7) 모둠별로 발표자 1-2명을 정해 활동 내용을 발표한다.



진행자 질문 예시

- 당신의 모둠은 어떤 정체성카드를 받았나요?
- 활동지에 적힌 혐오표현을 읽으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 다양한 혐오 표현에 위계를 매기는 것이 쉬웠나요?
- 그룹토론은 어땠나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 왜 이렇게 배치하였나요?

- 8) 모둠 발표를 통해 각각의 대상자에게 향하는 혐오표현에 나타난 공통점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본다.

도움말

- 차별적인 의도와 결과를 가짐: 어떤 말이 혐오표현인지 그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표현이 차별적 의도를 담고있는지, 그 표현이 더 큰 차별을 조장하는 결과나 효과를 내고있는지를 보아야한다.
- 어떠한 혐오표현이 각각의 소수성을 지닌 당사자에게 상처가 되고 차별의 결과를 가져올지 알기 위해서는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사자성에 대한 공감과 존중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 9) 혐오표현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하며 활동을 마무리한다.



진행자 발언 예시

- 혐오표현의 해악: 혐오표현이 단순히 나쁜 말, 순간의 기분이 나빠지는 말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혐오표현은 단지 표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를 공동체에서 위축되게 하고, 고립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더 큼니다. 혐오표현이 개인, 그리고 사회에 가지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알아보기로 해요. *<부록7> 참고



1. 난민, 이민자



깜둥이, 흑형, 동남아, 짱깨 와 같이 난민, 이민자를 낮춰 부르는
말들



자국민의 치안과 안전, 불법체류 외 다른 사회문제를 먼저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난민 입국 허가에 대한 재고와 심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서 폐지 또는 개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피부색이 다른 사람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난민을 받아들인다면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들은 이슬람 난민
에게 잡혀 성폭행을 당하고 소아성애 범죄도 늘어날 것이다.
(난민대책국민행동의 홍보 문구)



이슬람 확산은 한국안보에 치명타! (난민수용 반대집회 피켓 문구)



탈북민은 배급제였던 북한에서처럼 남한에서도 국가가 다 해주는
줄 알아서, 게을러. (인터넷 댓글)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주노동자들이랑 같이
공장에서 힘든 일을 하게 됩니다 (전체조회 교장 훈화 중)

2. 성소수자



성소수자면 밖으로 나와서 난리피지 말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너희끼리 그냥 조용히 사세요.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 발생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저출산 때문에 경제 위기에 처한다. (퀴어문화축제 반대 축 발언)



성소수자를 인정하게 되면 근친상간, 소아성애, 수간까지 비화 될 것이다. (이00 의원 발언)



자신을 여성이라고 착각하는 남성들은 들으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정신적 여성임을 주장하더라도, 당신은 여성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성기 성형 수술 없이도 여성으로 인정받는 세상을 꿈꾸겠지만, 그런 세상은 당신 앞에 펼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트랜스젠더 A씨 입학 반대 대자보)



이 원소들은 비정상적으로 결합하니까 트랜스젠더 원소라고 부르자 (학교에서 무지개길 찾기 중 청소년 성소수자가 학교에서 들었던 말)



너희는 참 잘 붙어다니더라. 오해하기 딱 좋네. (청소년 성소수자가 학교에서 들었던 말)



3. 장애인



신체장애인보다 더 한심스러운 사람들. 정치권에는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의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이00 전 국회의원 발언)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장애인이면 암전히 집에나 있어라. (이동권 투쟁 중인 장애인활동가에게 한 말)



선천적인 장애인은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와 의지가 좀 약하다 (이00 전 국회의원 발언)



"빼뚫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 (한 정당의 논평 글 중에서)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니라면 집단적 조현병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 (한 정당의 성명에 나타난 글)



"웃기고 앉아 있네, 진짜 XX 같은 게." (여00 전 국회의원 국정 감사 발언)



4. 여성/페미니스트



너 페미냐? 너 메갈이냐?



‘명품백을 가장 쉽게 얻는 방법은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 ‘좋아하는 김대리를 차지하는 쉬운 방법은 치마를 10cm 자르는 것’
(화장품 회사 광고)



김여사, 된장녀, 김치녀, 맘충과 같이 특징을 잡아 여성을 비하하는 말



“여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 (일본 전 총리 발언)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속담)



"공부 잘하는 여성은 팔자가 사납다" (정○○ 교수의 만화에 등장한 말)



‘여성혐오나 차별은 망상에 가까운, 소설·영화를 통해 갖게 된 근거없는 피해의식’ (이○○ 당대표 발언)



5. 아동/청소년



초딩, 급식충, 잼민이 등 아동·청소년을 비하하는 단어



중2병, 등골브레이커 등 아동·청소년의 특징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며 계층적 특징을 드러내는 단어



청소년이 뭘 안다고 선거권을 주느냐, 학생이 무슨 투표냐, 공부나 해라, 청소년은 선동에 잘 휩쓸려 선거권을 주면 안 된다. (선거권 하향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



‘요즘 10대가 이렇게나 무섭다’, ‘소년법 폐지가 필요하다’ (청소년 범죄의 기사 댓글)



“애들이 무슨 의견을 얘기하냐. 뭘 안다고” (한국의 정부 관계자가 아동참여위원회 구성에 대해 문의할 때 했던 답변)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혜택을 받는 청소년들이 문제다’ (‘청소년 요금 할인’과 같은 청소년 복지 혜택에 대한 인터넷 기사 댓글)



“우리 학생들이 아주 대견합니다.”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재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숙려제 토론에서 비청소년 토론자가 청소년 토론자에게)



레벨5

레벨4

레벨3

레벨2

레벨1



- ‘혐오표현의 무게’ 활동 중에 혐오표현을 분류하다보면 단순한 ‘모욕적 표현’ 보다 선동적 효과를 지닌 표현을 더 심각하게 배치하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 혐오의 피라미드를 보면 편견, 고정관념, 부정적 인식은 혐오표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선동적인 표현은 실제적 차별행위를 넘어 증오범죄의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혐오표현을 단순히 ‘나쁜 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어크로스, 84쪽>

전개활동
3

혐오표현 분석하기 (55분)

활동
목표

- 거시적인 관점에서 혐오표현의 근원과 그 해악을 분석한다.
- 혐오표현의 효과가 당사자 집단에게 피해를 가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안다.
- 혐오를 소비하는 사회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하고, 만연한 혐오에 대해 본인의 입장과 태도를 형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혐오표현
의 영향력
(5분)

준비물:
강의를
위한 자료
(부록6)

이전 활동에서는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 집단이 되어 사회적 고립, 차별의 확산을 느껴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혐오표현이 실제 어떤 해로움을 가져올지 생각하며, 혐오표현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생각해볼 것임을 안내해주세요. 먼저, 혐오표현이 차별행위를 넘어 혐오범죄의 형태로 나타난 사례를 간단히 살펴 봅시다.

1) 혐오표현의 해악에 관한 사례로 강의를 진행한다. *<부록8> 참고

도움말

1. 지난 시간과 바로 이어 활동하는 경우, 앞 차시에서 혐오표현을 접했을 때 느낀 감정을 짚어보며 가볍게 시작해도 좋습니다.
2. 내가 느꼈던 감정이 실제 혐오표현 당사자가 느꼈던 심리임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록9>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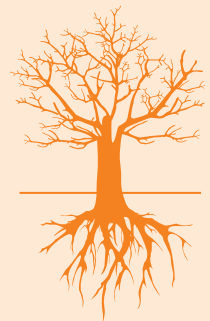
나무/
뿌리/가지
(50분)

준비물:
'혐오표현
나무'활동지
(전지에
나무가
인쇄된 것),
색연필 및
매직 세트,
모듬별
활동지
전시 공간

'혐오표현 나무'를 통해 혐오표현의 원인과 해악에 대해 생각해보는 활동입니다. 혐오표현이 혐오표현 대상자, 사회 전체, '나'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시선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Part 1. '혐오표현 나무' 만들기

- 1) 모듬별로 '혐오표현 나무' 활동지(전지에 나무가 인쇄된 것)를 살펴본다. 오늘 주제를 가지고 '혐오표현 나무'를 만들 것임을 설명한다.
- 2) 각 부분의 의미를 질문하고, 안내한다.
 - 나무(몸통) ≡ 실제 쓰이는 혐오표현 (여기에 <전개2> 혐오스펙트럼을 붙인다.)
 - 뿌리 ≡ 혐오표현의 원인이 되는 것
 - 가지 ≡ 혐오표현의 해악(영향력)
- 3) '혐오표현 나무'의 '뿌리'와 '가지'를 표현한다.
 - 더 깊은 '뿌리'(근원적인 원인), 더 멀리 뻗는 '가지'(파생되는 효과가 큰 것)가 있음을 안내한다. (무엇이 더 근원적이고, 파생적인지 생각하도록 한다.)



나무/
뿌리/가지
(50분)



진행자 질문 예시

- '혐오의 나무'에서 '뿌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 혐오표현의 효과가 더 큰 것은 가지의 어느 쪽에 적으면 좋을까요?

4) 모둠 안에서 토론을 하며 '혐오표현 나무'를 완성한다.



진행자 질문 예시

- (뿌리질문) 왜 우리가 이런 말을 썼을까요?
- (가지질문) 사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 (가지질문) 점점 서로를 혐오하면 사회 전체 분위기/단합의 정도는 어떨까요?
- (가지질문) 이런 혐오표현을 쉽고 빈번하게 들으면,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도움말

1. 혐오의 원인을 'SNS에 올라와서', '남들이 쓰니까', '잘 몰라서', '살기 어려워서' 등 자기만의 언어로 편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혐오표현의 원인 예시) : 편견이나 고정관념 / 무지 / 재미, 농담 / 남들 따라하기 / 언론의 사용 및 과장 보도 / 정치인·유명인의 사용 / 가짜뉴스 / 사회만연 구조적 차별 / 권력의 수단 / 사회경제적인 불평등현상

* <부록10> 참고

Part 2. '혐오표현 나무' 둘러보고 공유하기

'혐오표현 나무' 결과를 전시하고 모든 참가자들이 서로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활동입니다. 결과물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혐오표현의 효과를 구체화하고, 덧붙이거나 확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불어 혐오의 대상에 따라 원인이 다양할 수 있으며, 혐오표현의 해악이 여러 가지 있음을 비교해 보도록 해주세요.

- 1) '혐오표현 나무'를 전시한다.
- 2) 자유롭게 전시 공간을 둘러보며 '혐오표현 나무'를 살핀다.
각 모둠의 결과물(뿌리/가지)과 비교하며 보도록 한다.

3) 월드카페(하단의 도움말 참조)에서 나눌 4개의 주제를 안내한다.

도움말 (주제 예시)

주제1) 각 모둠의 결과물이 가지는 공통점/차이점은 무엇이었나요?

주제2) 다른 모둠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점은 무엇이었나요?

주제3) 우리가 생각해 본 소수자 말고 또 우리 사회에서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들에 대한 혐오표현이 가지는 사회적 해악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제4) '혐오표현 나무'로 가득찬 숲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숲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4) 각 주제를 이끌어갈 호스트(카페지기)를 1명씩 선정한다.

5) 희망하는 주제를 한 곳 찾아가 이야기를 나눈다. (약 10~15분)

6) 나온 이야기를 간략히 발표하며 '나무/뿌리/가지' 활동을 마무리한다.

7) 진행자는 혐오표현이 혐오의 대상자뿐만 아니라, 혐오를 소비하는 사람에게도 해악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하며 활동을 마무리한다.

진행자 발언 예시

- 혐오표현은 혐오의 대상자뿐만 아니라, 혐오를 소비하는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 따라서, 우리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혹은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는 혐오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과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말 (월드카페)

- '월드카페'는 참가자들이 4~6명의 작은 그룹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정해진 시간 동안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활동입니다. 테이블에 큰 종이와 펜을 두고 자유롭게 적기도 하면서 대화합니다.

- 참여자 역할:

(1) 호스트(카페지기):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 한 자리에 앉아서 손님을 맞이합니다. 손님이 오면 주제를 소개하고, 논의를 이끌어간다.

(2) 손님: 원하는 테이블에 앉아 사람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혐오표현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범죄나 폭력을 조장한 경우의 사례입니다.

(사례1) 2016 여성혐오-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여성을 살해한 사건



2016년 5월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살해당했다. 범인은 “여성들에게 무시를 당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여성은 범인과 일면식도 없었다. 우연히, 그날 밤, 그 자리에 있다가 단지 ‘여성’이란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됐다. (중략)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묻지마 살인’이 아니라 ‘여성 혐오’ 살인이다” … 중략 … 3만 5천여 장의 포스트잇엔 슬픔과 분노가 서렸다. 포스트잇을 적은 수많은 여성들은 여성 혐오가 실제로 존재함을 자기 삶으로 증명해 보였다.

- 사진 및 기사 출처: [한겨레] 모든 곳이 ‘강남역’ 이었다 여성혐오 살인 사건 1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5047.html
- 관련영상: [스브스]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은 것
<https://youtube.com/watch?v=e35CKrH53Hg&feature=share>

(사례2) 2018 성소수자혐오- 인천퀴어문화축제 반대·혐오표출과 물리력 행사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 기독교단체 등 1000명 몰려와 반대집회
행사 진행 파행..부스 운영, 공연 무산
참가자들 “깃발 등 물품 훼손...폭행성희롱도”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반대집회 관계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불법촬영,
폭언, 성희롱을 당했다는 참가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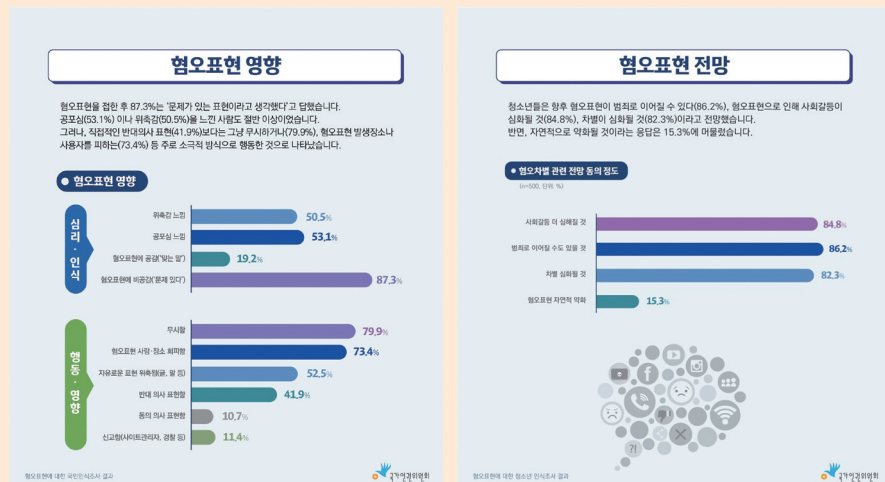
(중략) 또 다른 참가자 역시 ‘동성애는 죄악’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와 자신의 팔
에 난 상처를 찍은 사진 등을 트위터에 올리고 “(반대집회 참가자한테) ‘벌레 같다’는
소리를 들었다. 나를 꼬집고 할퀴기도 했다’고 썼다.

- 사진 및 기사 출처: [한겨레] 집단적 린치, 일방적 테러, 인천퀴어축제에서 무슨 일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1537.html

- 관련영상: [닷페이스] 인천 퀴어 문화 축제에 몰려온 수천명의 반동성애 사람들
<https://youtube.com/watch?v=P1nQkvSgFMU&feature=share>

- 관련영상: [닷페이스] 혐오표현(맘충,김치녀) 같은 말들을 우리가 써서는 안되는 이유, ~31초
<https://youtube.com/watch?v=Jdtys3VOF2g&feature=share>

부록 9 <전개활동 3> 혐오표현의 해악 감의자료 2 (혐오차별 대상자 심리)¹⁾



1)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 국민인식 조사(2019)





1. 개인에게
미치는
해악
(혐오표현
대상자)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부정

일상생활에서 배제되면서 위축감, 공포감, 정서적 스트레스를 넘어 자기를 비하하거나 부정하는 심리에 이릅니다. 이는 한 개인에 대한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상호존중과 인권 보호의 전제가 되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합니다.

2) 개인적 인권의 침해

혐오표현은 그 대상자에 대하여,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협합니다.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 공포와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인권권·혐오받지 아니할 권리) 등)

2. 사회에
미치는
해악

1) 민주주의 왜곡과 부정

차별과 배제를 경험해 온 집단의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기 힘들게 되거나, 다수의 사람들이 혐오표현에 설득되어 혐오와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다양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2) 사회적 통합 방해

제도와 법률이 혐오와 차별 의식을 반영하면서 사회적 차별은 더 강화됩니다. 차별현상이 심화되면서 사회의 양극화가 확대됩니다.

3. '나'에게
미치는
해악

1) 감정 전이

우리가 빈번하게 혐오, 증오 발언을 접하게 되면 뇌에서 이와 관련된 인지적 요소들이 만성적으로 활성화되어 공격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본인도 유사한 감정을 드러내는 글이나 같은 톤의 감정을 보여주는 글을 작성하게 됩니다. (70만명 이용자 대상 페이스북 실험)

2) 둔감화(감수성과 반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예민했지만 갈수록 둔감해졌던 경험이 있을까요? 이는 감수성(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를 잘 인지하고 예민하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특정 자극물에 자주 노출이 되면 이를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3) 왜곡된 현실 인식

언론은 객관적인 실재로서의 세계와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는 현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월터 리프먼, '퍼블릭 오피니언(여론)') 오늘날은 댓글, 소셜미디어 포스팅도 유사 역할을 합니다.

[실험] 기사에 반대되는 내용의 댓글을 본 경우, 기사만 본 경우에 비해 여론이 기사에 덜 우호적인 것으로 나옴.

4) 사회 구성원에 대한 믿음 저하

사회적 신뢰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필수자원입니다. 혐오 댓글이 아닌 경우를 읽을 때, 사회적 신뢰가 높아지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2)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리포트(2019)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실천 안내서(2020)

[APoV컨퍼런스, 이은주] 혐오발언 왜 문제인가?(2020)

마무리

정리 활동(15분)

활동 목표

- 혐오표현의 정의와 효과, 혐오표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며 2회기에서 배운 내용을 확인한다.

나의 언어로 정리하기 (15분)

준비물:
색지(A4),
필기도구

앞선 활동(감기걸린 물고기, 색깔 스펙트럼)에서 '색깔'을 활용해 혐오표현을 살펴보고 분석했던 만큼, 전반적인 2회기 프로그램(혐오표현의 의미와 종류, 해악)을 색깔에 빗대어 자기의 언어로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차시인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대응 방법 등을 고민하기 전에 '혐오표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1) 진행자는 책상 위에 다양한 색지(A4)를 펼쳐놓는다.
- 2) 참가자들에게 '혐오표현'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색깔의 색지를 고르도록 한다.
- 3) 내가 고른 색깔과 '혐오표현'을 연결 지어 전체 2회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이나 배움을 색지에 적는다.

진행자 발언 예시

- 예시) 혐오표현은 '하얀색'입니다. 새하얀 거짓말처럼 단순히 나쁜 말 혹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어느새 우리 모두를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 4) 색지를 가지고 종이비행기를 접는다. 비행기는 자유로운 모양으로 만들도록 한다.
- 5) 동그랗게 둘러앉아 비행기를 날린 후, 자기 앞에 떨어진 비행기를 집어서 안의 내용을 확인한다.
- 6) 진행자는 몇 명을 인터뷰하며 종이비행기에 적힌 내용을 발표하게 한다.
- 7) 위 활동을 2~3번 반복해도 좋다.

도움말

1. 참가자들이 적은 색지는 혐오표현 나무 전시공간에 두어 참가자들이 활동 후에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세요. 또는 색지를 펼쳐 혐오표현 나무 주변에 함께 붙여 전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2. 색깔 비행기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나의 언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3회기
함께 혐오에
맞서기

활동 안내



3회기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혐오표현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항표현에 대해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회기에서 배웠던 혐오표현의 개념과 심각성을 아는 것만으로는 생활 속에서 혐오표현을 맞닥뜨렸을 때 효과적으로 반응하고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3회기에서는 청소년들이 대항표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직접 실천해봄으로써 혐오와 차별에 대항하는 힘과 연대의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진행해 주세요.

활동 목표



- 대항표현의 필요성과 방법을 안다.
- 대항표현에 직접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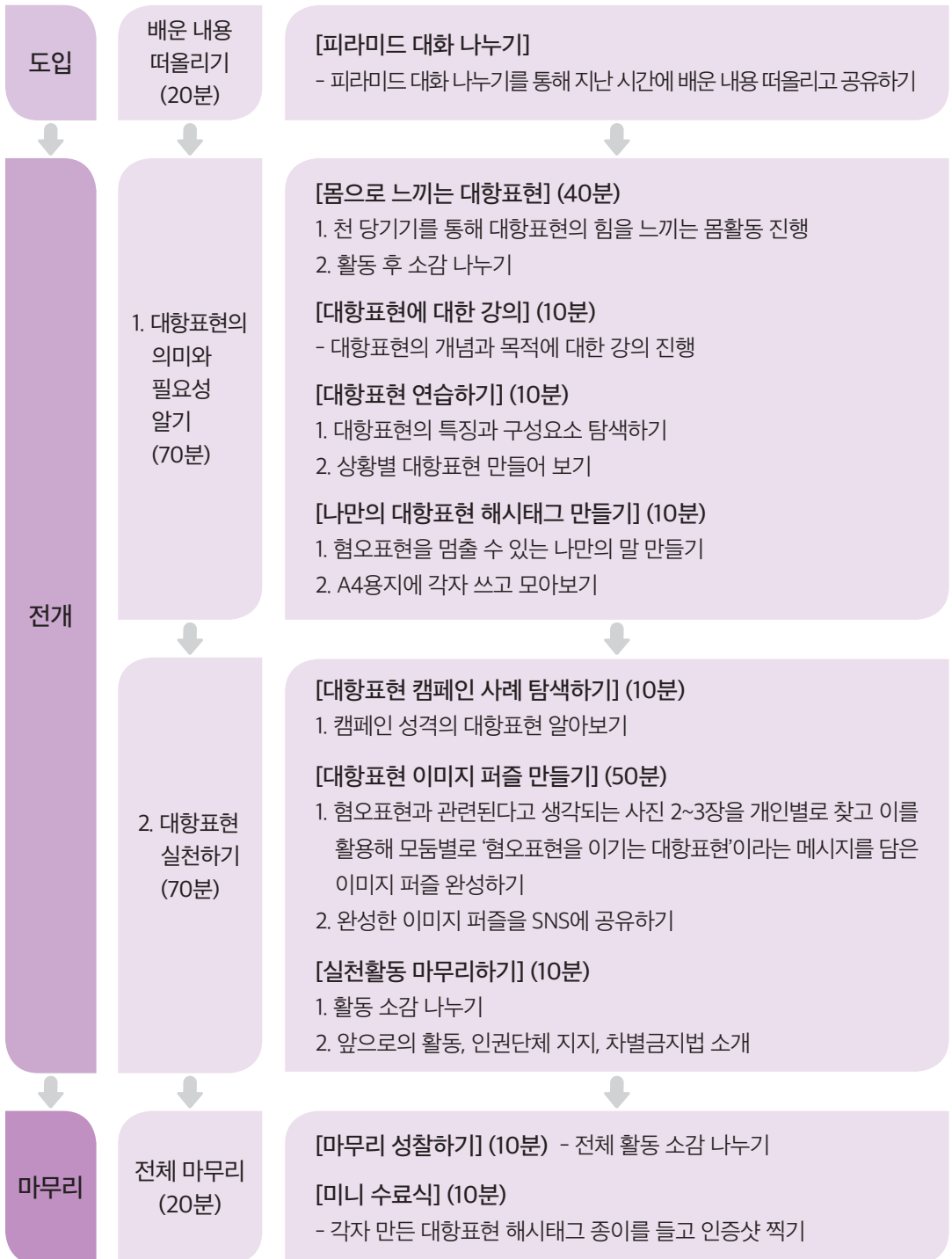
준비물



- 참여자 준비물: 간단한 필기도구, 스마트폰
- 진행자 준비물

준비물	필요한 순간	대체 가능 준비물
긴 천 (스카프 류)	<전개1>에서 '몸으로 느끼는 대항표현'을 할 때 두 명이 잡고 당기는 몸활동에 사용됩니다.	양쪽에서 잡아당길 수 있는 튼튼하고 긴 물건은 무엇이든
부록을 활용한 대항표현 강의자료	<전개1>에서 대항표현을 할 때 사용할 강의자료를 <부록1>을 바탕으로 준비해주세요.	시각자료, 인쇄물 등
A4용지와 유성매직	<전개1>에서 나만의 해시태그만들기 활동할 때 사용합니다.	종이와 필기도구
모둠별 노트북	<전개2>에서 '대항표현 이미지 퍼즐 만들기' 활동을 진행할 때 모둠별 이미지 퍼즐을 만들 때 필요합니다.	모둠별 태블릿 pc, 스마트폰, 잡지 사진 활용
폴라로이드 카메라	<마무리>에서 '미니 수료식'을 진행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없는 참여자를 위한 추가 스마트 기기	<전개3>에서 인터넷 밈(짤)을 검색하고 공유할 때 사용합니다.	추가 기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자신이 보았던 밈을 그릴 수 있는 종이와 펜을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활동 과정



도입활동

배운 내용 떠올리기(20분)

활동
목표

- 혐오표현의 정의와 해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서로 듣는다.
-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인사와
안부
(2분)

새로운 회기의 시작을 안내하고 지난 시간에 설정했던 그라운드룰, 모드 세팅의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피라미드
대화
나누기
(16분)

혐오표현의 정의, 해악 등에 대해 배운 내용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확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더라도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 1) 진행자가 활동의 방법과 목적에 대해 안내한다.
- 2) 가까이에 있는 2명을 짝지어주고 1분~2분 정도 지금까지 활동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이나 기억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 3) 짝을 바꾸어 새로 만난 2명이 앞서 이야기한 것과 다른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 4) 위의 과정을 2~3회 반복한다.
- 5) 4명씩 모여서 이전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를 공유한다.
- 6) 모이는 인원의 숫자를 늘려가며 전체가 하나로 모여 이야기를 공유할 때까지 진행한다.

도움말

-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시간을 독점하지 않도록 안내해주세요.
- 특정 참여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짝을 이루는 과정을 주의깊게 살펴주세요.

진행자의
정리
(2분)

지금까지 혐오표현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간에는 혐오 표현을 멈추는 대항표현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 안내합니다.

- 1) 참여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혐오표현의 정의와 해악에 대해 간단히 정리한다.
- 2) 대항표현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소개한다.

전개활동
1

대항표현의 의미와 필요성 알기(70분)

활동
목표

- 대항표현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고 그 감정을 공유한다.
- 대항표현의 개념과 효과를 이해한다.
- 실천 가능한 대항표현의 방법을 연습하고 지속적으로 대항표현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키운다.

몸으로
느끼는
대항표현
(30분)

준비물:
긴 천
(스카프
류), 혐오
표현의
예시가
적혀있는
카드

신체 활동을 통해 혐오표현을 혼자서 마주했을 때와 여러 사람과 함께 대항할 때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참여자의 신체 변화를 관찰하고 감정을 공유하며 대항표현이 필요하다는 것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끼도록 해주세요.

1) 진행자가 몸활동을 통해 혐오표현에 맞서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해볼 것이라 안내한다.

진행자 발언 예시

- 활동을 하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섬세하게 관찰하면서 참여해봅시다.
- 상황을 관찰하며 내 마음 속에서 어떤 감정이나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집중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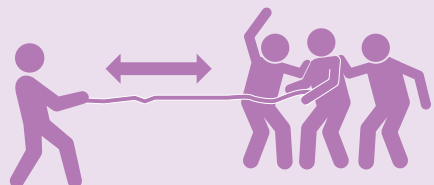
2) 진행자는 활동에 직접 참여할 2명의 참가자를 초대한다. 2명의 참여자는 혐오표현 대상자의 역할과 혐오표현 발화자 역할을 하게 된다.(이하 '대상자'와 '발화자'로 지칭함) 나머지 참가자들은 상황을 관찰하고 보조적인 참여자가 될 것이라고 안내한다.

도움말

- 2명의 참가자를 초대할 때 진행자가 누군가를 지명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지원 받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3) '대상자'와 '발화자'는 긴 천의 양 끝을 팽팽하게 잡은 상태로 서로 마주보고 선다.

4) '대상자'는 자신이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 한 명이라고 상상하면서 '발화자'의 말을 듣는다. '발화자'는 카드에 적혀있는 혐오표현을 실감나게 읽으면서 천을 힘주어 당긴다. 1분 정도의 간격을 두고 3~4차례 진행한다. (이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몸으로
느끼는
대항표현
(30분)

※ '발화자' 역할을 위한 혐오표현 카드 예시

-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너희끼리 놀아.
- 너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내 눈에 띄지 않았으면 좋겠어.
- 너를 사랑해서 반대하는 거야.
- 너를 싫어할 권리도 있어.
- 너희는 범죄자 집단이잖아.

- 5) 진행자는 앞선 활동(4번)을 반복하며 나머지 참가자들을 한 명씩 무대로 초대한다.(4~5명) 초대된 참여자는 '발화자'의 어깨 또는 등에 손을 올리며 발화자의 말을 따라한다.

도움말

4~5번 활동을 할 때 나머지 참가자들이 무대로부터 등을 돌리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상자'는 소외감과 배제된다는 감정을 더 강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 6) 진행자는 '발화자'와 '대상자'에게 질문하고 생각을 듣는다.



진행자 질문 예시

[공통 질문] 활동을 하며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들었나요?
[‘대상자’에게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이 좀 더 나아질 것이라 생각 하나요?

- 7) 다시 한번 4번 활동을 반복한다. 이번에는 나머지 참여자들이 '대상자'의 어깨 또는 등에 손을 올리며 '발화자'가 천을 당길 때 함께 버터준다. 이 때, 진행자의 발언을 따라 말하도록 한다.



진행자 질문 예시

[발화자를 바라보며] 그만해, 그런 말은 괜찮지 않아.
[대상자를 바라보며] 괜찮아. 난 너의 편이야.

- 8) 진행자는 무대 위 활동을 정리하고, 참가자들이 4~5명씩 모이도록 한다. 참가자들은 진행자가 제시하는 질문에 따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눈다.

몸으로
느끼는
대항표현
(30분)

 진행자 발언 예시

- 활동에 대한 느낌은 어땠나요?
- 활동이 진행되면서 무대 위 참여자들의 행동, 목소리, 표정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 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9) 참가자들이 전체로 모여 소그룹에서 나온 이야기 중 인상 깊었던 내용을 공유한다.

대항표현
에 대한
강의
(10분)

준비물:
강의 자료
(<부록1>
참고하여
조직한
자료)

대항표현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간단한 사례를 학습자에게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이 대항표현이고 아닌지를 따지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대항표현과 실천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폭넓게 상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혐오표현 발화자를 비난하고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항표현은 결국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며, 인권과 다양성의 가치를 옹호하고 피해자와 연대하는 행동입니다. 혐오표현의 발화자를 직접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때로 비효율적이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혐오에 반대하는 입장과 목소리를 키워나가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1) 진행자는 앞선 활동에서 ‘대상자’와 ‘발화자’ 역할을 맡은 참가자를 앞으로 초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한다.

 진행자 발언 예시

- 가장 힘들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 가장 힘이 나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2) 대항표현에 관한 강의를 진행한다. 인터뷰에서 나온 참여자들의 소감을 바탕으로 대항표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항표현의 의미를 설명한다. * <부록1> 참고

대항표현
연습하기
(10분)

준비물:
활동지
또는
A4용지

일상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혐오표현에 맞설 수 있는 대항표현을 만들어보고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대항표현의 필요성과 효과에 공감을 하더라도 혐오표현을 맞닥뜨렸을 때 바로 대항표현을 사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적절한 대항표현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공동으로 만들어보는 연습을 통해 혐오에 맞서는 힘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1) 대항표현의 구성요소나 특징,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이때, 특정한 방법을 강조하기보다는 혐오표현을 무력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도록 한다. * <부록2> 참고

2) 4명 또는 5명씩(강의 상황에 맞게) 모둠을 구성한다.

3) 앞서 몸활동에서 사용한 혐오표현에 맞서는 대항표현을 모둠별로 만들어 본다.

대항표현
연습하기
(10분)

※ ‘대항표현 연습하기’ 활동 예시

아래와 같은 활동지를 제시하거나 진행자가 혐오표현을 칠판에 띄우거나 말로써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 활동지 예시(대항표현 부분은 빈칸으로 제시)

몸활동에서 사용한 혐오표현	대항표현 (예시)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너희끼리 놀아.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은 내가 가진 당연한 권리야.
너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내 눈에 띄지 않았으면 좋겠어.	눈에 띄지 말라는 것 자체가 싫어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해.
너를 사랑해서 반대하는 거야.	사랑한다면 있는 그대로 존중해줘야 하지 않을까?
너를 싫어할 권리도 있어.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차별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다양성을 해치는 일이야.
너희는 범죄자 집단이잖아.	근거 없는 악의적인 이야기야.

- 4) 모둠별로 만든 대항표현을 공유한다. 사회자가 혐오표현을 발화하면 그에 맞는 대항표현을 모둠별로 말한다.

나만의
대항표현
해시태그
만들기
(10분)

준비물:
A4용지,
유성매직

혐오표현을 멈출 수 있는 대항표현을 각자 생각해보고 자신만의 대항표현 해시태그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대항표현을 모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여기에서 만든 대항표현 해시태그를 이어지는 다음 활동에서 직접 사용해볼 것임을 안내하여 다음 활동과 연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1) 참가자들은 각자 SNS에서 보았던 해시태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진행자는 참가자들이 해시태그를 모를 경우 간단히 설명한다.
- 2) 앞선 활동을 떠올리며 혐오표현을 멈출 수 있는 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브레인스토밍한다.
- 3) 가장 마음에 드는 문구를 골라 해시태그(#○○○)의 형태로 A4에 적는다.
- 4) 참가자들은 각자 만든 해시태그를 벽면에 전시하고 다른 참가자들의 해시태그를 살펴본다.



1. 대항표현의 개념

혐오표현을 멈추거나 무력화시키는 모든 종류의 표현 방식으로, 혐오표현을 반박하고 맞받아치는 말과 행동을 뜻합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의 존엄함을 존중하는 인권의 가치를 담아내는 표현입니다.

모든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항상 바람직한 방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상 생활에서 듣게 되는 혐오표현에 맞서 인권의 가치를 지지하고 표적이 된 개인과 집단에게 연대하는 대항표현을 할 때, 혐오표현의 해악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대항표현은 매우 폭넓은 개념이므로 특정한 표현이나 예시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의미와 태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대항표현의 종류

1) 대항적 말하기 vs 대안적 말하기³⁾

대항적 말하기	대안적 말하기
- 혐오표현에 정면으로 맞서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말하기 - 비교적 소규모로 짧은 시간 안에 혐오표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표 - 즉각적인 액션	-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 대응하거나 언급하기보다 사회문제에 대한 관점이나 대안을 제안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미치는 말하기 - '반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보다 '무엇을 위하여'에 초점을 둬. - 광범위한 프로젝트에서 장시간 동안 실시

2) 개인적 대항표현, 집단적 대항표현, 국가 중심 대항표현⁴⁾

① 개인적 대항표현 : 개인이 직접 혐오표현 발화자에게 맞대응하는 대항표현

예시)

- “여자라서 예민하다.”라는 혐오표현에 대해 “남성과 여성의 뇌는 생물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습니다.”라고 말하기
- “그것은 명백한 혐오표현이며, 차별입니다.”
- “나는 당신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 출처: [Council of Europe] WE CAN! Taking Action against Hate Speech through Counter and Alternative Narratives Revised edition(2017)

4) 출처: [오픈넷] (웹 세미나, 유민석)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대항표현이란 무엇인가(2021)' [APoV컨퍼런스, 이은주] 혐오발언 왜 문제인가?(2020)

② 집단적 대항표현 : 장기간에 걸쳐 혐오세력에게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대항표현

예시) 침례교 목사인 프레드 펄프스(Fred Phelps)가 만든 'godhatesfags.com(하나님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신다)'라는 사이트는, 하나님이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신다는 것을 성경 구절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과 더불어 다양한 가짜뉴스들로 가득 찬 혐오 사이트였다. 이에 쿼어 운동가들은 godhatesfags.com을 풍자하는 'godhatesfigs.com(하나님은 무화과를 혐오하신다)'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무화과를 혐오하신다는 주장을 확증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 목록을 열거했다. 'godlovesfags.com(하나님은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이트를 통해 펄프스 목사의 도메인 이름을 훔치는 데 성공해 'godhatesfags.com'의 모든 방문자를 72시간 동안 해당 사이트로 오게끔 만들기도 했다.

③ 국가 중심 대항표현 : 국가 고위 공직자가 차별이나 혐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직접 분명히 내주거나, 정부가 혐오에 맞서 싸우는 산하기관이나 시민단체에 지원을 제공해주는 방식의 대항표현

3. 대항표현의 방향

대항표현이란 결국 '누구의 편의 설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혐오표현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혐오표현에 맞서는 용기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혐오표현에 직접 맞서지 못하는 개인으로서 자책감을 가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어렵다면 집단으로 더 나아가 정부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혐오표현의 발화자를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때로 비효율적이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혐오에 반대하는 입장과 목소리를 주변에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록 2

<진개활동 1> 강의자료 2 (대항표현의 특징, 구성요소) ⁵⁾

캐서린 겔버(Katherine Gelber)는 대항표현의 3가지 방식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 1) 혐오표현에 담긴 허위 사실을 반박하라
 - 혐오를 확산하고 자극하는 가짜뉴스를 방지하지 말고, 정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 잘못된 내용을 정정해야 합니다.
- 2)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라
 - 혐오표현은 소수자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존엄성을 훼손합니다. 이러한 표현에 대항하여 다양성과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는 표현을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혐오표현을 하는 사람의 정의감에 호소하라
 - 때로는 사실적인 논박에 앞서 사람들의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 따뜻한 인정에 호소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네가 틀렸어'라는 지적은 거부감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출처: 혐오에 맞서는 유스를 위한 액션 톨킷,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2021)

<https://amnesty.or.kr/campaign/againsthate/>



전개활동
2

대항표현 실천하기 (70분)

활동
목표

- 대항표현의 직접적인 실천을 통해 혐오에 맞설 용기를 가진다.
- 대항표현을 함께 실천하면서 연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낀다.
- 혐오표현에 대한 온라인상의 대항표현을 모색한다.

대항표현
캠페인
사례
탐색하기
(10분)

개인의 말과 행동에 그치지 않고, 대항표현이 널리 확산되어 혐오표현을 무력하게 만든 실제 사례를 탐색함으로써 대항표현의 효과와 힘을 느끼고, 대항표현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온오프라인 상에서 나타났던 다양한 대항표현 사례를 살펴 보고, 작은 힘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느껴보기 바랍니다.

- 1) 국내외에서 벌어졌던 혐오표현의 사례(축구장 관객들의 인종차별, 성소수자 환영 현수막 훼손 등)를 소개하고 자유롭게 이야기나눈다. * <부록3> 참고



진행자 발언 예시

- 어떤 느낌이 드나요?
- 자신이 직접 그 상황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나요?
-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혐오표현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혹은 자신의 일상과 접점이 없어 보이는 혐오표현 사례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 2) 이 사례에서 실제로 나타난 대항표현을 소개한다. * <부록3> 참고

- 3) 이번 시간에는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대항표현 캠페인을 해볼 예정임을 안내한다.

대항표현
이미지
퍼즐
만들기
(50분)

준비물:
스마트폰,
태블릿pc
또는 노트북
(모둠별 1개)

이 활동은 오늘날 청소년에게 익숙한 도구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온라인 도구를 활용합니다. 온라인이 혐오의 공간이 아닌, 연대와 인권 옹호의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체감 하고 경험하기 위하여 구성된 활동입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이용하는 것이 제한적인 환경일 경우에는 신문이나 잡지 등의 이미지를 4절 도화지에 구성하여 표현하는 오프라인 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혐오표현과 관련된 자료를 참가자들이 직접 찾고 이를 활용하여 하나의 메시지가 담긴 대항표현을 만들어보도록 합니다. 결과물의 완성도에 집중하기보다는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대화하며 대항표현을 실천하는 과정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완성한 결과물은 직접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하여 참가자들이 대항표현을 지속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결과물을 SNS에 공유할 때는 공통 해시태그 '#혐오를_이기는_대항표현'을 사용하여 이후 검색을 통해 대항표현을 위해 연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항표현
이미지
퍼즐
만들기
(50분)

- 1) 진행자는 참가자들을 4~5명씩 묶어 소그룹을 구성한다.
- 2) 참가자들은 각자 '혐오표현과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사진 또는 이미지를 검색하고,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해보이는 것을 2~3장 정도 선별하여 저장한다.
- 3) 소그룹으로 모여 각자 수집한 이미지를 한 곳에 모은다.
- 4) 참가자들은 토의를 통해 수집한 이미지를 모두 활용하여 '혐오표현에 대항하는 메시지'를 담아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

도움말

- '#혐오를_이기는_대항표현'을 검색하여 기존의 작품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 활동의 결과물이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시) 순서가 있는 카드뉴스, 여러 이미지가 합쳐진 모자이크, 웹 포스터, 짧은 영상 등
- 다음과 같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미리캔버스(www.miricanvas.com)
타일(<https://tyle.io/>)
구글슬라이드(<https://docs.google.com/presentation>)
키네마스터, 윈도우무비메이커 등

- 5) 완성한 작품은 공통 해시태그 '#혐오를_이기는_대항표현'과 함께 자신만의 대항표현 해시태그를 붙여 각자의 SNS에 업로드한다.

도움말

- 개인 SNS 계정에 결과물을 업로드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참가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항표현에 직접 참여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주며 참여를 독려하거나 새로운 계정을 생성해서 올리는 등 대안적 방법을 안내해주세요. 개인 SNS에 탑재하는 과정이 강요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6) '#혐오를_이기는_대항표현'을 검색하여 다른 소그룹의 작품을 살펴보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단다.

- 1) 참가자들은 작업을 정리하고 한 자리에 모인다.
- 2) 한 명씩 또는 희망자가 돌아가며 '대항표현 실천하기'를 진행하며 느낀 점을 공유한다.
- 3) 진행자는 참가자들에게 앞으로도 혐오에 맞서 꾸준히 대항표현을 해줄 것을 부탁한다.

진행자 발언 예시

- 인터넷에서 혐오표현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캡처해서 지금처럼 해시태그를 달아 SNS 계정에 올려보면 어떨까요?

- 4) 사회적 차원의 대항표현(인권단체 지지 등)에 대해 짧게 안내한다.

* <부록4 참고>

진행자 발언 예시

- 국내에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다양한 인권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단체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지를 보내는 것도 하나의 대항표현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차별과 혐오를 막기 위해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영역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으로서 힘쓰는 것 역시 대항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말

인권단체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사회 곳곳에서 혐오표현에 대항하여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과 인권시민단체가 그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음을 중심으로 안내해주세요. 각 단체에서 배포한 혐오표현 관련 자료를 소개하거나, 캠페인에 참여해볼 것을 독려하여, 혐오표현에 맞서는 활동이 1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기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춰주세요.



예시1) We are all monkeys -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SNS 캠페인

2014년 유럽의 축구 경기에서 관객들이 유색인종 선수들에게 바나나를 던지는 등, 인종차별적 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 관련기사 [연합뉴스] 축구장에 인종차별 바나나 투척... '냉정대응' 격려 쇄도
<https://www.yna.co.kr/view/MYH20140430004300038>

이에 대항하여 네이마르 등 유명한 축구선수들이 바나나를 먹는 사진을 SNS에 게시하면서 인종차별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후 사람들이 이어서 SNS에 비슷한 사진을 게시하면서 인종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캠페인이 확대되었습니다.

'We are all monkeys' - Neymar starts anti-racism campaign



#somostodosmacacos #weareallmo
 #somostodosmonos #totssommono

millenalima04, _caarolbs, jorgechoa8
 others like this.

freitazinho
 S
 marcelafabri
 0
 uoshington07
 Likes retribuio todos
 gblopees
 0000000
 viictorkruschewsky
 I
 julianaguerra7
 Eu te amo
 ar_alsu
 Hahahah000

- 관련기사 검색키워드<세계는 지금 알베스 바나나 열풍 anti-racism>

예시2)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 일상 속 나이차별 문제 개선 캠페인

'청소년 인권연대 지음'에서는 나이차별에 대항하기 위한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자주 듣게 되는 일방적 반말,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존칭없이 하대를 당하거나 무례한 대우를 받는 일, 어린이, 청소년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에 맞서고 나이가 어려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라인 서명, 약속, 포스터 게시, 언론사 제보 등의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상 언어 속 나이 차별 문제 개선 캠페인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어린이에게 경어를 써 달라” 1922년, 제1회 어린이날
부터 시작된 유서 깊은 청소년인권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자주 듣게 되는 일방적 반말

야, 어이, 너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존칭 없이 하대를 당하거나 무례한 대우를 받는 일

~양/군, ~친구, 투명인간 취급

어린이, 청소년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표현

미자, 급식충, 초딩, 애새끼, ~린이

어리다는 이유로 겪게 되는 차별, 이제 바뀌야 하지 않을까요?

반말, 하대, 무시, 투명인간 취급은 그만!

어린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정중하게 존중하라!

우리는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캠페인을 통해 우리
사회의 나이주의적인 언어 문화에 문제제기하고 어린 사람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 함께해요 *

- 1) 온라인 서명/약속에 참여해주세요! <https://yhrjjeum.kr/ageismcampaign>
- 2) 학교, 시설,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 '어린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켜달라고 요구해요!
- 3) 언론사에도 문제를 알리고 함께 바뀌어가는 약속을 받아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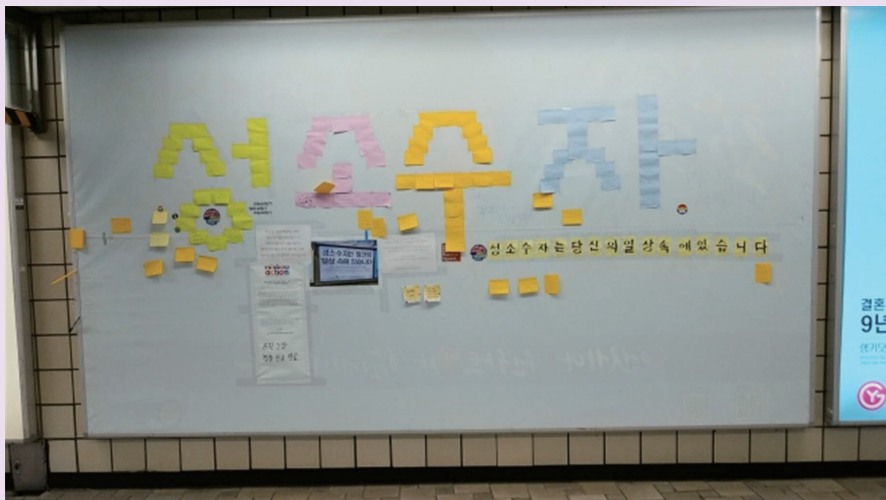
관련 웹사이트: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https://yhrjjeum.kr/ageismcampaign>

예시3) 신촌역 성소수자 차별 반대 광고판 훼손 사건

2020년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 게시된 ‘2020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대형 광고판이 게시된지 이틀만에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광고판을 훼손한 20대 남성 A씨는 “성소수자들이 싫어서 광고판을 찢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혐오표현, 혐오범죄에 대항하기 위해 시민들은 철거된 광고판 위에 연대의 포스트잇을 붙여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에 있다는 메시지를 알렸습니다.

관련기사: [서울신문] 찢겨나간 광고판이 보여준 뿌리깊은 성소수자 혐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04500141>





<차별과 혐오와 맞서는 다양한 인권단체들>

- 국제앰네스티
- 인권재단 사람
-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땀동
- 닷페이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없이 이루어지는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겪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구제를 포함하는 기본법이다. 장애여성, 성소수자 여성, 이주장애인 등 단일한 정체성으로 환원할 수 없는 복합적인 사회적 위치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경험하는 모든 이들의 평등권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마무리
활동

전체 마무리(20분)

활동
목표

- 전체 활동에 참여한 소감을 함께 나누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
- 사회 구성원으로서 혐오표현의 위험을 알고 대항표현을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과 의미를 돌아본다.
- 지금까지 함께 활동한 동료들과 자신을 격려하고 축하한다.

마무리
성찰하기
(10분)

- 1) 서로 마주볼 수 있게 동그랗게 모여 앉는다.
- 2) 워크숍에 참여한 소감을 나누고 듣는다.

 진행자 활동 예시

- 좋았던 점, 기억에 남는 점 나누기
- 5글자로 소감 말하기
- 마음에 담아가고 싶은 3가지 이야기하기

도움말

- 이 외에도 1회기에서 함께 읽었던 그림책 ‘입없는 아이’를 다시 한 번 읽으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볼 수 있는 ‘죽을 용기’가 무엇인지 나누어볼 수도 있습니다.
- ‘돌팔매’(이적 정규앨범 6집 ‘트레이스’ 타이틀곡) 노래를 함께 들으면서 소감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미니
수료식
(10분)

- 1) 진행자는 참가자들의 활동 마무리를 축하하면서 간단한 수료식이 있음을 안내한다.
- 2) 각자 만든 해시태그 종이를 들고 인증샷을 찍는다.

도움말

-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준비할 수 있다면 사진의 실물을 참가자들에게 선물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사진으로 인증샷을 찍을 경우, (참가자가 동의한다면) 공통 해시태그를 달아 SNS에 공유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사전에 참가자 명단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수료증을 만들어서 선물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폴라
로이드
사진기
또는
스마트폰



워크숍 프로그램 교안 개발팀

이은진 (서울발산초등학교 교사)

김유진 (선사고등학교 교사)

유시경 (신도고등학교 교사)

홍의표 (서울도봉초등학교 교사)

이나현 (경기 회정초등학교 교사)

김병성 (경성중학교 교사)

청소년 혐오차별 대응 워크숍 프로그램 교안

혐오차별 대응하기

발행일 2021년 11월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주 소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전화 (02)2125-9854 FAX (02)2125-0917

인쇄처 디자인모장

전화 (02)2278-1990 FAX (02)2278-1992

ISBN 978-89-6114-833-7 9337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
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 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인권교육기획과

Tel : (02)2125-9854, Fax : (02)2125-0917 <http://www.humanrights.go.kr>

ISBN 978-89-6114-833-7 93370